

碩士學位論文

황순원 장편소설의 갈등양상 연구

-「나무들 비탈에 서다」「日月」「움직이는 城」을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1991年 12月 日

황순원 장편소설의 갈등양상 연구

—「나무들 비탈에 서다」 「日月」 「움직이는 城」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金 永 和

高 銀 娥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1年 12月

高銀娥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1年 12月

A STUDY ON THE CONFLIET HWANG
SUN-WON'S LONG STORIES

—MAINLY 「TREES STAND ON THE SLOPE」
「SUN AND MON」 「THE MOVING CASTLE」—

KO EUN-SUG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Hwa,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1. 12.

목 차

I. 序 論	1
1.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2
3. 연구사	3
II. 葛藤의 展開	6
1. 내적자아와 외적자아와의 갈등	8
2. 개인과 개인의 갈등	17
III. 葛藤의 解決	25
1. 자기동일성의 추구	26
2. 세계동일성의 추구	29
III. 葛藤構造에 따른 人物들	37
1. 주동인물	38
2. 반동인물	42
3. 매개인물	45
V. 결 론	48
<참고문헌>.....	51
<영문초록>.....	53

I. 서론

1. 연구목적

황순원은 습작기의 시창작을 비롯하여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에서 작가적 역량을 보여줬다. 휴머니즘 정신을 기조로 한 서정성과 모더니즘 계열의 상징기법에 의해 창작되어진 초기의 두 시집에 나타나는 시적정서는 초기단편에 그대로 이어져 나타나며 이후의 문학세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대부분 그의 단편소설에서는 서정적 감각을 통한 본질적인 인간모습의 재현으로 시적 정서가 발견된다. 이와같은 단편소설에서의 시적 서정성은 초기장편에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초기장편인 『별과 같이 살다』 『카인의 후에』 『인간접목』에서는 일제말기, 해방직후, 6. 25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반응하는 인물들의 대응양식들이 제시되며 상황이나 인물설정이 단선적으로 표출된다. 이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갈등 또한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의 외적인 갈등이 주로 다루어진다. 이와같은 초기장편의 인물과 상황설정의 단순성과 단선적인 갈등의 양상들은 『나무들 비탈에 서다』 이후의 장편에 접어들면서 극복되어진다. 이들 장편들에서는 상황설정이 매우 상징적으로 제시되고 다양한 인물유형들에 의해 다선적인 갈등의 양상들이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표출되기에 이른다. 작가는 이들 작품들에서 전쟁의 황폐한 현실, 백정이라는 인습의 굴레, 유랑민 근성이라는 민족성을 외적인 조건으로 배치해 놓고 여기에 대응하는 인간들의 내적인 갈등과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이기적인 인간관계로 인한 외적갈등을 은밀히 표출시키고 있다.

소설 작품에서 설정된 갈등구조를 추적해나가는 것은 그 작품의 문학성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의 연구는 모든 소설에 존재하는 일정한 갈등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제 형상화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황순원 장편소설의 문학성에 접근하고자 하는 데

서 작품에 설정된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범위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나무들 비탈에 서다』 『일월』 『움직이는 성』의 인물들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상황과 인간관계로 인해 내면적인 심리갈등을 경험한다. 이들의 내면세계와 갈등의 본래적인 원인은 주어진 상황의 모순 속에서 파급되는 것들로 작가는 상황으로 인해 外傷이나 內傷을 입는 인물들의 상처를 직접적으로 표출시키기보다 개인들의 심리상태나 내적갈등을 통해 암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그리고 상황 자체보다는 상황에 대응하는 인물의 내면심리 묘사에 주력함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했다. 이 작품들에서는 상징적인 장치들과 다양한 인물유형의 제시 그리고 갈등구조의 긴밀한 조직성 등으로 문학적 형상화에 성공을 거둔다.

이들 작품들에서는 황폐화 된 현실상황 속에서 되찾아야 할 보편적인 인간의 존재와 인간성 회복의 문제로 고민하는 인간유형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소설의 갈등은 이들 자의식이 강한 인물들의 행위에 의해 표출된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에서는 소설의 갈등을 인물들의 심리상태의 진행에 따라 전개시키고자 한다. 이 작품들의 인물들은 대부분 상황의 변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심한 자기와의 싸움을 지속시킨다. 이러한 개인들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식들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깊은 연관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작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갈등이 어떻게 전개 해결되는 지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우선 갈등의 전개를 한 인물의 내적자아와 외적자아의 욕구 대립으로 인해 전개되는 양상과 여러 인물들이 각기 상이한 인간관계로 설정된 타인들과의 욕구 대립으로 인해 전개되는 양상에 대해 살핀 뒤 갈등의 해결과정에 대해 다루려 한다. 여기에서는 갈등이 변모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무의식의 자기와의식의 자아와의 합일을 통한 자기동일성의 과정과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의 과정에 관점을 두고 살피고 갈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인물유형분

류를 시도하려 한다. 여기에서의 논의의 초점은 인물 상호관련 속에서 소설의 갈등을 전개시키는 데 따른 인물의 역할과 기능에 두려한다.

연구의 범위는 황순원이 60년대 초반과 70년대 중반에 걸쳐 창작한 장편소설에 해당하는 『나무들 비탈에 서다』, 『일월』, 『움직이는 성』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3. 연구사

황순원의 장편소설에 대한 논의로 김병익¹⁾은 황순원의 장편소설에서 역사와 현실의 부재, 도피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그의 소설에 있어서 현실의 내면화, 사건과 인물의 내향화를 정확히 감식하지 못한 결과라 논의한 바 있으며 이태동²⁾은 황순원의 작품들이 실존주의적 상징주의 성향을 띠는 것은 현실에 뿌리박은 작품세계에 있다는 논의가 있다. 김영화³⁾는 황순원의 장편소설에서 제시된 외적인 현실조건들은 당대의 시대를 부분적으로 다루면서 작품 속에서 역사를 의식하려는 작가의 태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와같은 논의들은 작가의 순수문학적 성향에 대한 올바른 해명작업의 시도로 보아진다. 반면 김윤식, 김현⁴⁾은 그를 퇴폐적 낭만주의 작가로 보고 낭만주의적 별림은 좌절감을 거쳐 구원의 미학에 이른다고 보았다. 김현⁵⁾은 대부분의 장편소설의 주인공들은 내적세계에 침저한 병적 낭만주의자로 보고 있는 데 이는 종전에 이루어진 현실과 사회를 외면한 순수 낭만작가라는 견해에 궤를 같이 하는

1) 김병익, “순수문학과 역사성” 『황순원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5) PP. 25

2) 이태동, “실재적 현실과 미학적 현현” 『황순원연구』 (문학과지성사 1985) PP. 73

3) 김영화, “일월의 세계” 『건국어문학』 제9, 10합집 (건국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85. 7) PP. 699

4)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PP. 240

5) 김현, “소박한 수락” 『황순원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5) PP. 100

논의로 보아진다. 정한숙⁶⁾은 황순원의 장편들에서 치밀한 언어구사에 비해 인물들이 평면적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보영⁷⁾은 황순원 장편소설은 결벽증 지닌 작중인물을 통해 절대적인 숙명적 조건에 처한 인간들의 모습과 그들 극복하고 구원의 세계로 도달해 가는 그들의 정신적 변모과정을 형상화시켰다고 논의했다. 서경희⁸⁾는 작중인물의 성격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는데, 주로 남녀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원형적 인간애에 대해 논의했고, 그의 소설 속에서 형상화된 성격의 상호 관련성을 검토한 후 인간형의 전체적인 형상을 고찰했다. 안남연⁹⁾은 작중인물의 윤리의식에 중점을 두어 유형분류를 시도한 바 있다. 그는 <곰녀><오작녀><동호>의 윤리의식을 애정과 성윤리에 입각해서 고찰했고, 『일월』의 인물의 그것을 인습과 사회윤리에 입각해서 논의했다. 그리고 <도섭영감><동호><윤구><현태>의 윤리의식을 전쟁과 자아윤리에 입각해서 논의하였다. 주제에 따른 작품세계의 논의로는 주어진 상황에서의 인간의 숙명적 조건과 고독에 반응하는 패배와 승리의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시킨 것¹⁰⁾과 초기작에서 최근작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추구되어 온 것은 남녀관계의 순수한 사랑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 있다.¹¹⁾ 또한 『일월』과 『움직이는 성』을 한국민의 민족성인 유랑민 근성에 입각해서 논지를 접근시



- 6)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출판부, 1982) PP. 184
지성사, 1985) PP. 91
- 7) 이보영, “황순원의 세계” 『황순원연구』 (문학과지성사, 1985) PP. 55
- 8) 서경희, “황순원소설연구” 『어문학연구』 제 5집 (전북대어문학연구회, 1985)
PP. 9~48
- 9) 안남연, “황순원 장편소설의 작중인물과 윤리의식” 『우리어문학연구』 (한국외대사대 한국어교육과, 1990) PP.
- 10) ① 김치수, “외로움과 그 극복의 문제” 『황순원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5
PP. 113 ~117
② 천이두, 『종합에의 의지』 (일지사, 1974) PP. 131~137
- 11) 김영화, “황순원소설의 세계” 『분단문학과 비평문학』 (한국비평가협회, 상록
1986) PP. 271 ~274

킨 것도 있다. 12) 7편의 장편을 대상으로 하여 황순원 문학의 특징은 원죄 의식에서 출발하여 속죄과정을 거쳐구원의 문계에 도달하면서 심화 확대되어 간다고 논의했다. 13) 작품에 등장하는 작중인물의 상호관계를 토대로하여 인물의 유형분류를 시도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갈등양상에 대해 고찰한것¹⁴⁾도 있으나 대략적인 논의로 그친감이 있다. 우한용¹⁵⁾은 초기장편인 『별과 같이 살다』의 양식적 특징을 소설 사회학적인 견지에서 검토한 후 인물의 성격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현란¹⁶⁾은 전기장편이 지니는 문학적 가치를 밝히고 전 후기 장편의 양식적 특징과 차이에 대해 언급하였다. 박관수¹⁷⁾는 『움직이는 성』을 분석심리학을 적용하여 인물들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세 주요 인물들이 서로 각기 다른 자아실현의 과제를 갖고 접근하는 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황순원 장편소설에 관한 논의들은 대개 작품의 주제나 상황에 반응하는 인물들의 삶의 대응방식을 통한 작품세계로의 접근과 평이한 인물들의 성격파악 정도에 머문 감이 있다. 또한 갈등에 대한 논의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인 논의로 그치고 있다.



- 12) 홍기삼, “한국소설과 유랑민근성” 『문학사의 기술과 이해』 (평민사, 1979) PP. 132 ~137
- 13) 한승욱, “황순원장편소설연구” 『한국현대장편소설연구』 (민음사, 1989) PP.285~319
- 14) 이용남, “황순원소설연구” 『비교문학』 제 15 집 (한국비교문학회, 1990) PP.269~273
- 15) 우한용, “황순원초기장편의 양식적 특징” 『언어문학』 제15집 (전북대국어국문학회, 1985) PP.3~25
- 16) 이현란, “황순원소설연구” (성신여자대학원 석사과정, 1988) PP.11 ~43
- 17) 박관수, “황순원작품에 나타난 자기실현문제” (충남대대학원 석사과정1983) PP.10 ~58

II. 갈등의 전개

갈등이론에 대한 두드러진 성과를 올린 학문분야로 사회학과 정신분석학을 들 수 있다. 사회학에서는 집단과 개인, 개인과 개인의 갈등 즉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외적인 상황과의 갈등관계에 주목한다면 정신분석학은 개인의 내면세계에 집중하여 거기에서 발생하는 갈등관계에 주목한다.

갈등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법은 개인의 심정적 차원을 우선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갈등의 동기와 배경요인은 심리학적 접근 혹은 정신분석학적인 축수로 풀이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모든 갈등이 개인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이상 조직, 빈부, 계급, 통계 등의 개념을 파헤치는 데 역점을 두는 사회학적인 접근¹⁸⁾도 심리학적인 방법 못지 않게 효과적인 것이다.¹⁹⁾

18) 지금까지 서구에서 사회학적인 접근법으로 이루어진 갈등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로버트 로오드 Robert C. North 는 『정치적 위상에서의 갈등론』에서 둘 이상의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동일한 대상을 취하려 할 때 빚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에드워드 머레이 Edward J. Murry 는 『심리적 위상에서의 갈등론』에서 갈등은 한 개인이 두개 혹은 그 이상의 상호배타적인 활동에 참가하도록 동기화된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리학적 갈등론의 편린은 프로이드의 문화론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는 문화는 생물적 충동과 사회에의 욕구가 충돌해서 생기는 산물이라고 했는데 이때 두 가지 욕구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곧 갈등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길버트 압케리안 Gilbert Abcarian과 몬테 팔머 Monte Palmer 는 심리학적 시각과 사회학적 접근법을 잘 배합하는 가운데 갈등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갈등의 주 원인을 인간의 본능과 원시적인 충동에서 찾고자 했다. 이와같이 갈등의 이론에 대한 접근은 대개 심리학적 시각과 사회학적 시각에 의해서 시도되어 왔다.

19)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2) PP.187~190

용 심리학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무의식의 자기와 의식의 자아 사이의 분리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⁰⁾ 이는 갈등을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의식의 자아는 외적세계²¹⁾와 내적세계에 적응하려는 욕구를 가진다. 이때 자아는 외적세계와 접촉하는 가운데 외적세계의 적응에 필요한 행동양식인 페르조나²²⁾를 익힌다. 그러나 의식의 자아가 자신과 맞지 않는 페르조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기 본연의 전체성²⁴⁾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자기동일성²⁵⁾은 분열되고 이러한 자기동일성 상실을 자아가 인식함으로써 갈등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자기동일성 상실의 원초적인 원인은 집단사회인 외부세계와 자아의 욕망의 괴리에 있다. 자기동일성 상실은 자기 본연의 전체성에 대한 개인의 욕망을 외부세계가 억압하고 차단하려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동일성 회복은 세계와 자아의 대립없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과 세계는 대립하게 되고 이러한 대립으로 개인의 갈등은 파생되는 것이다.

소설은 갈등관계의 서술양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현대소설에 와서 개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갈등이론의 체계화 및 심화작업이 가속화되었다. 소설에 있어서 갈등의 전개와 해결방식은 작품의 평가기준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작품에 있어서 갈등구조의 설정은 문학성의 성패를 가늠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소설에 있어서 갈등구조의 접근은 중요한 일이다.

20)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1987) PP.41 ~70

21) 외적세계란 집단사회를 일컫는 것이다.

22) 내적세계란 무의식계를 포함한 마음의 세계를 말함이다.

23) 페르조나란 고대 그리스어의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말하는 것으로 용은 집단이 개인에게 준 역할, 의무, 약속 그 밖의 여러 행동양식을 페르조나로 보았다.

24) 자기본연의 전체성이란 한 개인의 의식-무의식을 통틀어 전체로서의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전 성품을 말한다.

25) 자기동일성이란 내적자아와 외적자아가 서로 합일을 이루어 갈등이 없는 만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 자아의 분리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심리적 갈등은 그만큼 크게 된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황순원 장편소설에서의 갈등은 대립적 세계인식에서 오는 개인의 심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표출된다. 작품의 인물들은 현실의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내면세계와 갈등하게 된다. 이러한 인물들의 내면갈등은 불합리한 현실상황의 억압에서 오는 것으로 개인들의 자기동일성 상실을 인식하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개인을 둘러싼 인물들과의 상호관련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양상들은 완전히 별개의 모습으로 존재하기보다 移入, 變遷하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는 현실적이면서 시대적인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소설이 다변화하는 현실의 모습을 반영하면서 갈등구조 또한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소설의 갈등양상을 한 개인의 외적자아와 내적자아의 갈등과 한 인물과 다른 인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으로 나누어 살펴려 한다. 우선 한 인물의 내면자아와의 갈등을 다룬 부분에서는 개인의 내면갈등의 원인을 내적세계의 자아분열 현상에 찾고자 했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다룬 부분에서는 인물들의 상이한 가치관과 욕망의 대립에서 갈등의 원인을 찾고자 했다.

1. 내적자아와 외적자아의 갈등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동호, 현태, 선우상사는 외적자아와 내적자아의 부조화로 갈등한다. 이들의 내적세계와의 부조화로 인한 갈등은 자기 전체성을 추구하려는 자아의 욕망을 외부세계가 억압함으로써 나타난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외적세계의 조건은 전쟁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의 욕망은 억압 차단된다. 그러므로 전쟁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페르조나는 개인의 욕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집단적인 욕구에 의한 것들로 동호, 현태, 선우상사의 자아와 충돌하게 된다. 이로써 전쟁이라는 거대한 집단의 황포로 개인의식이 좌절하게 된다. 이들은 올바른 자아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적응할 수 없는 전쟁의 상황에서 내적세계와 갈등하고 자기동일성 상실을 인식하면서 내적세계와 심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처럼 내적세계와 심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이들 인물들이 자기 전체성의 분열상태를 민감하게 인식한 때문이다.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물들의 갈등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호의

내면갈등은 전쟁 중 술집 위안부와의 육체적인 관계로 에인 숙에게 죄의식을 느끼면서 시작된다.

①서늘한 바람에 얼굴을 불리우면서 영락없이 자기는 여자에게 강간을 당하고 오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런 터무니 없고 맹랑한 생각에도 동호는 웃을 수가 없었다. 그저 자기 몸 한부분이 더러워졌다는 데 더 마음이 쓰였다. 26)

②어디까지나 피동적인 움직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돌발적인 사건이요 자기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된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사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이 아닌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짓대가 굳지 못한 데서 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꾸만 뉘우침이 가슴을 감았다. 27)

위에 제시된 예문 ①②는 동호가 현대네의 장난으로 옥주와 관계를 가진 뒤 오는 숙에 대한 죄의식으로 갈등하는 부분이다. 옥주와의 관계가 있기 전까지 동호는 순수성이란 측면에서 자기동일성 상실을 심각하게 인식 못한다. 그러나 옥주와의 육체적 관계 이후 순수성이 파괴되면서 심한 자기동일성 상실을 인식하고 내면갈등을 하게 된다. 동호의 자기동일성 상실은 숙과의 정신적인 사랑의 소멸위기에서 오는 것이다. ①은 동호가 정신적 순수성이 육체적 추잡성에 의해 강간당함으로써 느껴야 했던 감정들이다. 옥주와의 육체적 관계는 순수한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민한 동호의 자아로서는 수락하기 힘든 사실이다. ②는 모면할 수도 있었던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자신의 소심성 때문에 자책하는 것으로 거부해야될 상황에 대한 수동적인 수락으로 자아와 내적세계는 심한 갈등을 일으킨다. 이처럼 동호의 갈등은 옥주와의 육체적 관계를 그의 내적세계가 부정함으로써 시작되고 외적자아

26) 황순원, 『황순원 전집』 제 8권 (문학과 지성사, 1985) PP. 340

27) 황순원, 앞의 책, PP. 342

와 내적자아가 분리되면서 자기동일성 상실은 시작된다. 즉 술집 작부와의 도덕성이 무시된 추잡한 육체관계는 그의 순수한 내적자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된다.

선우상사는 전쟁 중에 부모를 학살로 잃고 그 충격으로 방황한다. 그의 갈등의 시초는 전쟁 중 부모의 처참한 죽음에 대한 기억을 시작된다.

이렇게 술을 먹으면 지금두 눈 앞에 선해. 우리가 토굴 속에 숨었다 나와서 본 광경이 말야. 어머니 아버지질 물들이구 있는 그 피빛이 말야. 어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피루 물들이게 한 놈들의 피를 보구 싶었어. 그런데 어떤 피를 가지구두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피를 갚을 순 없었어. 난 밤마다 빌었지. 오늘밤엔 잠든 채루 그냥 깨지 않게 해 달라구. 그리구 아침엔 날 불러가달라구. 28)

개인의 힘은 전쟁의 상흔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선우상사에게 주어진 외적세계는 전쟁의 비참한 현실이다. 그는 부모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해야 했던 비극을 체험함으로써 보통 인간의 삶을 포기해야만 했다. 부모의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 전투 때마다 선봉에 서서 <피의 앙갚음>을 시도하지만 그것을 시도할수록 가중되는 살인에 대한 죄의식은 그의 내적세계에까지 침투하게 된다. <피의 앙갚음>의 최초의 희생자인 어느 부역자의 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학적인 생활을 하기도 한다. 즉 그가 가거의 비극적인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감행한 <피의 앙갚음>이 오히려 자기 본연의 모습을 훼손시켜 내적자아와 외적자아는 분리되고 자기동일성 상실을 일으킨다.

현재는 전쟁 중에 느끼지 않았던 내적세계와의 갈등을 전쟁이 끝난 뒤 경험한다. 그는 전쟁의 상황에서 외적세계가 요구하는 페르조나를 수용한다. 이로 인해 그는 무인지대의 무고한 여인을 살인하고도 어떠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외적자아와 내적자아의 충돌에서 오는 자아분열도 인식하지 못한다.

28) 황순원, 앞의 책, pp. 313

현태는 이들 모녀를 본 듯 싶었다. 어두컴컴한 방안에 말라베틀어진 팔을 포대기 안에 내놓은 채 꼼짝않고 어린 애와 그 어머니. (중략) 현태는 자기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거기 아직 그냥 스며져 있는 여인의 약간 떨리면서 땀기운이 돌던 손의 촉감. 그리고 예마른 피부에 온기를 띠고 있던 목의 감촉. 어린 것에만은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것마저 생생한 실감을 갖고 되살아 오는 것이었다. 말라베틀어진 어린 것의 가느다란 목을 누를 때에 받을 수 있었던 촉감이. 그날 밤 그는 술을 마시고 또 마셨다. 다음날 다음날도 마셨다. 29)

위의 예문에서는 제대 후 사회생활에 정력적으로 임하던 현태의 돌연한 심리적 방향과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전쟁 중에 죽인 여인의 환상으로 인한 죄의식 때문에 방황하는 것은 자기 상실감을 인식한 때문이다. 이때부터 외적자아와 내적자아는 충돌하게 되고 내면갈등은 시작되기에 이른다.

『일월』의 인철은 신분의 노출로 내면세계와 갈등을 경험한다. 백정이라는 신분의 노출은 인철에게 심리적 압박감으로 다가오고 백정이라는 실체를 객관적으 인식하는 과정에서 외적자아와 내적자아의 충돌에서 오는 자기동일성 상실을 심하게 인식하게 된다.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①인철은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중략) 차고 음습한 공기가 짙 차 있었다. (중략) 인철은 쉬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중략) 그래도 계단은 아래로 끝이 없는 것이었다. 드디어 인철은 이것이 집안 한 옆에 나 있는 계단이 아니고, 계단만으로 된 집이라는 걸 깨닫는다. 30)

29) 황순원, 앞의 책, PP.404~405

30) 황순원, 『황순원 전집』 제8권 (문학가 지성사, 1985) PP.142

②한번은 이 어두컴컴한 층계를 내려가며 누구인가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략) 그는 자기 발 밑을 눈여겨 내려다 보았다. 맨발에 고무신을 신었으니 소리가 날리 없는데, 그러다가 그는 보았던 것이다. 자기가 밟은 맑고 푸른 잎사귀에 커다란 소발통 자국을. 31)

③그는 거울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저기 얼굴에는 입은 없고 귀가 유별나게 커져 있었다. 이 흉칙한 용모에 그는 놀랐으나 한편 응당 자기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수궁이 가는 것이었다. 32)

예문 ①③에 제시된 꿈들은 백정이라는 사실을 안 후 인철의 심리적 갈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3) 이들 꿈들은 暗示的 側面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불안심리를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내용의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때 제시된 꿈들은 의식되어지기를 촉구하는 뜻에서 나타나는 의식의 간접적 표현으로써 내면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34) ①~③의 꿈들은 신분에 대한 두려움의 표징으로 볼 수 있다. 『일월』의 인철에게 주어진 외적세계는 백정이라는 사회적 인습의 굴레로 자신의 신분을 알기 전까지 그는 자기동일성 상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신분의 노출로 내적자아와 외적자아는 분열되고 자기동일성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백정을 수용하고자 하는 내적자아와 백정을 거부하는 외적자아가 충돌하여 분열을 일으키면서 갈등은 시작된다. 이때 외적자아가 백정의 세계를 거부하려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신 당하는 신분에 대한 열등감 때문으로 이러한 인철의 신분에 대한 갈등은 사회

31) 황순원, 앞의 책, PP.143

32) 황순원, 앞의 책, PP.155

33) C. G. Jung은 꿈의 기능을 의식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지향적 의미로 보았다.

34) 김병익, “순수문학과 그 역사성” 『황순원 전집』 제 12권 (문학과 지성사, 1985) PP.24

적 신분계층의 이동이 보여주는 갈등으로도 볼 수 있다.³⁵⁾ 그러나 인철은 백정의 실체를 회피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면하려 한다. 이러한 것은 인철이 자기동일성 회복을 위한 시도로도 볼 수 있다. 인철은 내적자아와 외적자아의 부조화를 인식하면서 신분의 실체에 접근하게 되고 이로써 내면갈등은 심각하게 표출되기에 이른다. 인철의 신분에 대한 갈등은 사촌 형 기룡과의 만남을 계기로 존재론적인 갈등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때부터 주위 인물들에게서 절대 고통을 실감하게 되고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적인 외로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인철은 외적세계가 요구하는 페르조나에 회의를 느끼고 거부하게 되면서 심리적 갈등은 심화되기에 이른다.

주인공 인철의 사촌 형인 기룡은 아버지 본돌영감이 자신의 살인죄 누명을 쓰기 전까지는 자기동일성 상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는 9. 28수복 이후의 용군에서 도망쳐 나온 날 형과 조카의 죽음을 목격하고 살인으로 복수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대신 살인죄 누명을 쓰고 자식의 죄를 씻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고 스스로 사회학도의 꿈도 버리고 도수장의 일을 시작한다. 이처럼 기룡이 스스로 백정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가업을 잇는다는 명분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는 살인으로 인해 자신에게 지워진 죄의식의 무게 즉 외로움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식을 갈등하는 것은 내적자아와 내적자아의 충돌과 분열로 인한 자기동일성에 대한 상실감 때문이다.

『움직이는 성』의 준태는 굴욕스러운 어린시절의 기억들을 경험한다. 어린시절의 불행한 기억들과 굴욕감들은 성인된 준태의 생활에 적지않은 영향으로 작용한다. 모든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어떠한 것에도 애착을 가지지 못하고 생활에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근성들은 어린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어린시절부터 느껴야 했던 현실에 대한 패배감, 세계에 대한 배반감 등은 성인이 된 그에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했고 현실 속에 뿌리내기를 거부하도록 만든다. 준태의 갈등은 무의식에 잠재된 유랑민 근성에서 오는 현실 부적응으로 야기된다. 부부생활에 어떤 애착도 가지지 않

35) 김병익, 앞의 논문, PP.26

고 무의식 중에 자유스러운 하숙생활을 꿈꾸는 것이나 현실의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 어떠한 애착이나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은 그의 정착을 거부하는 유랑민 속성을 잘 반영해 주는 것들이다.

① 아내와의 생활에 부자유를 느껴온 것도 아니었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되도록 구속하지 않으면서 살아 온 터였다. 그렇건만 나는 결혼하고도 부지불식간에 지난날의 하숙생활을 은근히 그리워했던 건 아닐까. 그것이 아내에게 내가 무심한 결로 비쳐, 그네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한 거나 아닐까. 그렇다면 잘못은 아내보다 내게 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 잘못을 따져본들 무엇하랴. 앞으로 아내는 아내대로 나는 나내로의 생활을 시작해보는 거다. 37)

② 그 간단히 끝낸 면담 내용이 처음엔 준비를 솜반처럼 포근히 감싸주었다. 아무 부담을 주지않는 부드러운 촉감이었다. 그 솜반이 점점 습기에 젖어왔다. 그래도 견딜만했다. 그것이 아주 젖어들면서 묵직하게 달라붙어 죄어드는 것이었다. 견딜 수 없게 답답해왔다. 하기는 이러한 솜반의 포근함에 뒤따른 습기의 감득은 지금 비롯된 게 아닌 것같았다. 지연을 생각하게 된 이후로 때때로 일어난 일이지만 짐짓 외면하고 있었던 것만같았다. 몸을 돌리려는 준비의 다리가, 예의 발작으로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다. 38)

예문 ①은 준비의 유랑민 속성을 잘 반영해 주는 부분이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부자유를 느끼고 혼자만의 생활을 꿈꾸는 그의 의식의 심연에는 유랑민 근성이 도사리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정착을 거부하는 것은 유랑민 근성의 무의식적인 발로로 볼 수 있다. ①에서 준비는 무의식의 자기와 의식의

37) 황순원, 『황순원전집』 제9권 (문학과지성사) PP.117

38) 황순원, 『황순원전집』 제9권 (문학과지성사, 1985) PP.398

자아의 부조화에서 오는 동일성 상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아내와의 별거와 이혼으로 어떤 자유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자기만족의 간접적인 표출로 이러한 자기만족의 상태는 무의식의 자기와 의식의 자아사이에 분열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애정으로 접근해 오는 지연과의 만남 이후로 준태는 심한 자기상실감을 경험한다. 예문 ②는 지연의 부친과의 만남 후에 친식발작을 일으키는 부분이다. 지연 부친과의 만남은 지연과의 만남과 마찬가지로 준태로 하여금 포근함을 느끼게 한다. 이들과의 만남으로 <숨반의 포근함>을 감지하는 것은 그의 정착에의 욕망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정착에의 욕망을 느끼면서 준태의 자아는 내적세계와 심한 갈등을 한다. 준태가 정착을 욕망하면서 무의식의 자기와 의식의 자아는 분열되고 자기동일성은 상실된다. 즉 정착을 거부하는 무의식의 자기와 정착을 추구하려는 의식의 자아가 분열을 일으킨 것이다. 준태가 이러한 자기동일성 상실을 인식하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되기 시작한다. 또한 자기 상실감을 인식한 자아는 자기본연의 모습을 추구하게 되고 이때 외부세계가 이러한 자아의 욕망을 억제함으로써 자아와 세계가 또한 대립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아는 세계가 요구하는 페르조나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가정과 직장을 저버리는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준태의 내적세계와의 갈등은 자기동일성 상실의 인식으로 오는 자아와 세계와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준태의 무의식에 잠재해 있는 유랑민 근성은 한국민의 민족 집단으로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착하려는 의식의 자아와 유랑하려는 무의식의 자기와의 대립은 집단의식과 개인의식의 피리에서 오는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성호는 자기가 존경하던 목사부인인 홍여사와의 불륜과 그로 인해 생겨난 아이의 낙태로 오는 죄의식으로 방향한다. 성호는 자신의 죄의식을 씻기 위해 교역자의 길을 택하게 된다. 성호가 홍여와의 불륜으로 방향하는 것은 무의식의 자기와 의식의 자아 자아와의 분열에서 오는 것으로 자기동일성의 상실감 때문이다. 무의식의 자기는 도덕적 윤리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을 열망하나 의식의 자아는 이를 거부하면서 자기동일성 상실은 더욱 자극되어진다. 자기동일성 상실을 인식한 성호는 본래의 자기전체성을 추구하고자 하면서 현실적 삶을 떠난 교역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선택으로 홍여

사의 죽음으로 오는 죄책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의 은폐에서 오는 자책으로 죄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자기동일성을 회복시키지도 못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호의 자기동일성 회복은 홍여사의 비밀일기의 공개로 이루어진다. 또한 성호는 교역자로서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갈등한다. 이해타산적인 교회와 성직자들의 행위들이 묵인되고 자행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통해 자기본연의 모습을 추구하는 성호의 자아욕망은 억제된다. 내림굿의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 민숙의 삶과 가난한 이웃들의 비참한 삶을 목격하면서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고뇌한다. 이와같이 성호가 신앙의 문제로 내적세계와 갈등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동일성을 추구하려는 자아 앞에 세계가 막아섰기 때문이다. 즉 성호의 내적갈등은 자기 스스로의 모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세계에 의한 자아의 욕망 억제 때문이다. 『움직이는 성』에서는 사머니즘과 기독교라는 명제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인의 이원적 의식구조를 검토³⁹⁾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민족의 의식구조를 <유랑민 근성>이라는 민족집단의식에 결합시키면서⁴⁰⁾ 정신적 지주의 존재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같이 『나무들 비탈에 서다』, 『일월』, 『움직이는 성』에서의 인물들이 자기동일성 상실과 자기동일성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살폈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현대, 선우상사의 경우 자기동일성 상실을 인식하고 자기 내부의 모순을 스스로 자각하나 내적세계로의 지나친 집착으로 자기동일성 회복에 실패하고 끝내 자기동일성 상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한다. 그러나 동호는 자살로써 생을 마감하나 소극적으로나마 선우상사나 현대가 달성하지 못했던 자기동일성을 회복하기에 이른다. 즉 동호가 타락한 자신의 육체의 순수성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은 자기동일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일월』의 기룡이나 인철도 동호와 마찬가지로 자기동일성 상실을 인식하고 동일성 회복을 추구한다. 즉 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지성인들로 무의식의 자기와 의식의 자아와의 동일성 상실을

39) 천이두, “종합예의 의지” 『황순원전집』 제 12 권 (문학과지성사 1985) PP. 133

40) 홍정운, “황순원론” 『현대문학』 (현대문학, 1981, 7월호) PP. 271

민감하게 인식하고 자기 전체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추구한다. 『움직이는 성』의 준태와 성호도 자기동일성 상실을 인식하고 동일성 회복을 위해 자기와의 싸움을 시작한다.

이상에서 작품에 나타난 한 개인의 내적자아와 외적자아의 갈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서는 전쟁이라는 파괴적인 상황 속에서 개인들의 자의식의 피해상이 드러나고 『일월』에서는 인습과 모순된 사회현실 속에서 방황하는 개인들 의식의 좌절과 방황이 나타났으며 『움직이는 성』에서는 유랑민 근성이라는 민족성으로 인해 정착을 포기하거나 혹은 정착성을 잃은 신앙으로 구원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방황하는 개인들이 의식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내면자아와의 갈등은 개인의식이 집단의식의 횡포로 피해 입고 좌절하면서 시작된다. 이때 자아는 내적세계와의 부조화로 자기동일성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동일성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외부세계와의 대립이 수반되고 갈등은 첨예화되기에 이른다.

2. 개인과 개인의 갈등

앞 부분에서는 한 인간의 내적자아와 외적자아의 대립에서 오는 갈등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 『일월』, 『움직이는 성』은 초기 장편과는 달리 주어진 상황 속에서의 의미추구로 작품세계가 확대된다.⁴¹⁾ 이 작품들에서는 다각적인 인간관계가 제시되며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개인들의 대립과 충돌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작품 속에서 설정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들의 갈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남녀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의 인간관계로 설정된 개인들의 갈등양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교립적 인간관계로 인한 개인들의 갈등은 『나무들 비탈에 서다』와 『일월』에서 남녀관계와 가족관계로 설정된 인물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서는 동호/옥주/숙, 현태/미란/계향/숙이 남녀관계로 설정된다. 동

41) 천이두, “황순원의 문학” 『황순원문학선집』 (어문각, 1970) PP.542

호와 숙은 정신적인 사랑을 전제로 한 남녀관계이고 동호와 옥주와는 육체적인 사랑을 전제로 한 남녀관계이다. 동호는 숙과의 순수한 사랑에 만족하나 옥주와의 성관계 이후로 순수성의 파괴에서 오는 갈등을 경험한다. 동호에게 있어서 숙은 정신적인 위안이고 옥주는 육체적인 위안이다. 동호가 자신의 순결을 잃고 자책하면서 숙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은 육체의 불결함이 숙의 정신적 순수성에 대립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또한 삶의 방편으로 성을 팔아야만 하는 옥주의 직업과 삶의 방식을 불결하게 생각한다. 옥주와의 육체적 관계로 심한 혐오감을 겪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옥주의 육체로 자신의 순수성마저 오염되리란 두려움 때문이다. 이처럼 동호는 숙과는 정신적 순수성에서 오는 강박관념 때문에 갈등하고 옥주와는 육체적 타락에서 오는 강박관념 때문에 갈등한다. 동호가 숙과 옥주 누구에게도 귀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은 자기 분열에서 오는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때문이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현태/미란/계향은 정신적인 유대를 전제로 하지 않은 남녀관계이다. 현태는 이들과의 관계를 이기적인 자신의 사고방식에 따라 유지하려 든다. 미란은 현태의 친구인 윤구의 애인으로 폐할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로 그녀의 독선과 아집으로 현태와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 현태가 미란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으로 미란이 인간적인 유대를 요구하면서 헤어지게 된다. 계향은 술집작부로 어린 나이 답지 않게 이지적이고 차가운 성격의 소유자로 누구에게나 쉽게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다. 현태가 나이 어린 계향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내면적인 교류를 거부하는 듯한 기계적인 태도 때문이다. 생활에 심한 무기력증을 느낄 때마다 계향을 통해 안도감을 얻는 것은 자의식의 교류를 느끼지 않아도 되는 ⁴²⁾출가분함 때문이다. 그러나 계향이 인간적인 절규와 좌절을 토해내고 내면의 고통을 드러냈을 때 현태는 계향 또한 거부한다. 이와 같이 현태의 무책임한 인간관계로 미란과 계향의 의식은 충돌하게 된다. 즉 현태가 의식의 단절에서 오는 인간관계를 요구하는 반면 미란과 계향은 의식의 교류를 전제 한 인간관계 요구하면서 상반된 욕망들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42) 권이두, 『종합예의 의지』 (일지사, 1970) PP. 167

『일월』에서는 인철/나미/다혜가 남녀관계로 설정되는 데 인철과 나미는 정신적 교류가 부재하는 남녀관계이고 인철과 다혜는 정신적 교류를 전제로 한 남녀관계이다. 인철은 肉親에 가까운 애정으로 다가오는 다혜에게서 모성적 사랑을 느끼고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나미에게는 이성적인 사랑을 느낀다. 나미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인철을 대하고 이기적인 사랑을 요구한다. 반면 다혜는 인철에게 희생적인 애정으로 일관한다. 그러나 다혜는 무의식 중 인철과의 결합을 잠재적으로 희구한다. 인철이 이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은 다혜의 무보상적인 희생의 사랑은 안식을 주는 반면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배제시키고 나미의 이기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은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자극하지만 안식을 주지 못하는 데 있다. 인철이 완전한 인간적인 결합을 희구하지만 누구에게서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받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한다.

『움직이는 성』에서는 준태/창애/지연, 민구/은희가 남녀관계로 설정되는 데 준태와 지연은 탈속세적인 사랑을 전제로 한 남녀관계이고 그 이외는 세속적인 사랑을 전제로 한 남녀관계이다. 준태와 창애는 부부이나 남남과 같은 생활을 유지한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아내에 대한 준태의 무관심과 남편에 대한 창애의 회의로 파경을 초래하게 된다. 이들 관계의 파탄은 각자의 이기적인 생활의 고집으로 초래된다. 창애의 저돌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는 자기세계에 칩거하며 살아가는 준태의 생활방식에 적응하지 못한다. 자신에게 냉담한 준태의 태도에 모욕감을 느끼고 그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도를 시도하기도 하나 실패로 끝나고 만다. 이들의 갈등은 서로의 생활에 개입하려 하지 않고 각자의 독립된 생활을 추구하는 데 있다. 즉 자기의 세계에 타인을 드러놓지 않으려 하는 태서 갈등이 수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준태는 아내 창애와는 달리 희생적인 사랑으로 접근해 오는 지연에게서 다른 여성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친근감을 감지하게 된다. 그는 지연을 통해서 최초로 정착의 욕망을 느낀다. 준태에 대한 지연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⁴³⁾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관계를 떠난 사랑이다. 준태는 이러한 초월적인 사랑의 의지로 다가오는 지연을 통해서 현실에 뿌리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지연

43) 서경희, “황순원소설의 연구” 『어문학 연구』 제5집 (전북대어문학연구회 1985) pp. 11

의 사랑의 의지로 준태는 정착을 욕망하나 그의 내부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은 시작된다. 이들의 갈등은 희생적인 지연의 사랑을 준태가 그대로 수용하기 않는 데 있다. 이상과 같이 준태는 창애의 저돌적인 사랑을 수락하지 않는 데서 갈등하고 지연의 희생적인 사랑에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데서 갈등한다.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동호, 현태, 준태가 남녀관계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여성과도 정신적 귀착을 통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이들과 갈등하는 것은 의식이 단절된 인간관계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의 단절감으로 자기 상실감을 심하게 느끼고 타인과의 관계 또한 원만하지 못하게 된다.

민구와 은희는 현실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사이이다. 무속연구에 심취한 민구가 교회 장로 딸인 은희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은 세속적인 출세의지 때문이다. 이들의 갈등은 무속연구를 고수하려는 민구의 욕구와 이를 저지하고 교회로 끌어 들이려는 은희의 욕구 충돌에서 오는 것이다.

『일월』의 인철의 가족들은 상반된 의식과 욕구로 서로 갈등한다. 아버지 상진영감이나 어머니 홍씨, 인철, 인주와 인문은 모두 자신의 세계 속에 자신들만의 세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가족 구성원 누구와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다. 아버지 상진영감이 사업에 모든 것을 걸고 몰두하는 것은 백정이라는 열등감을 은폐시키기 위한 것이고 어머니 홍씨가 교회에 광신적으로 몰입하는 것은 남편과의 단절된 부부생활에서 온 것이다. 또한 인주가 연극에 몰입하게 된 것은 자신이 전처의 소생이 아니라는 열등감 때문으로 자신의 친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자유로운 연극배우로서의 삶을 선택하려 했다. 막내 인문이 동물사육에 몰두하고 특별한 애정을 기울이는 것은 가족들 특히 어머니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다. 이처럼 인철의 가족들은 서로의 세계를 부정하고 자기의 세계만을 고집하려는 데서 의식의 단절을 초래한다. 이들 가족 구성원들은 화해와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은 배색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데서 악화된 가족관계로 치닫게 된다.

다음으로 친구관계로 설정된 인물들의 갈등에 대해 살피기로 하겠다. 이들 친구관계로 설정된 인물들의 갈등은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의 세계관의 대립에서 오는 것이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서는 동호/현태/윤구가 친구관계로 설정된다. 이들은 전쟁에 같이 참가한 전우들로 동호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으로 현태와 윤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심한 거부감을 느끼고 자신의 소심성과 결벽증을 야유하는 이들에게서 열등감을 느낀다. 동호는 속과의 정신적인 사랑을 고수하기 위한 자신의 행동을 하찮은 결벽증 정도로 단정해 버리는 현태에게 특히 심한 열등감을 가진다. 현태 또한 동호의 순수성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 자신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주시하는 동호의 눈을 항상 의식하며 오히려 그의 순수성을 조롱하고 야유한다. 동호와 현태는 가가자의 인간성을 거부하면서 상대에게 열등감을 가진다. 동호의 소심성과 결벽성은 현태의 호탕한 영웅주의로 인해 위축감을 느끼고 현태의 도덕성이 마비된 타락성은 동호의 순수성으로 인해 위축된다. 이와 같이 정신적 순수성을 꿈꾸며 이상을 꿈꾸는 동호의 욕구와 정신적 타락을 방치한 채 현실에 안주한 채 살아가는 현태의 욕구의 대립으로 이들의 갈등은 수반된다.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동호와 현태는 각자의 자의식의 상호교류에서 연유되는 가해와 피해의 관계로 설정되나 이들과 윤구와는 숙명적인 피해 가해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⁴⁴⁾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동호와 현태는 표면적으로는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되나 심층적으로는 동일한 인물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이러한 것은 현태가 전쟁중에는 이상을 꿈꾸지 않는 현실주의자로 자처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는 동호와 동일한 자의식의 갈등을 경험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윤구는 현태를 친구이기보다 자신의 경제적 원조자 정도로 인식한다. 자신의 애인인 미란과 현태의 관계를 묵인하는 것은 순수한 우정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이해타산적인 계산 때문이다. 윤구는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전제로 모든 인간관계의 가치를 따지려 든다. 그러므로 동호나 현태의 자의식의 방황은 현실주의자인 윤구의 상식의 척도로는 이해하기 힘든 것들로 현실과 분리된 친구들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이들과의 관계의 지속을 거부한다. 즉 물질적 가치추구가 최고의 삶의 목표인 윤구에게 삶의 궤도에서 이탈된 인간들의 방향이나 고통은 무가치한 정력의 낭비나 최악으로까지 인식된다.

44) 천이두, “종합예의 의지” 『황순원전집』 제12권 (문학과지성사, 1985) PP. 138

『움직이는 성』에서 친구관계로 설정된 인물들은 준태/성호/민구이다. 준태와 성호는 민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로 표면적으로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의 내면고통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들의 우정은 지속되기에 이른다. 이들은 세계를 인식하는 태도에서 상반된 견해를 가진다. 성호는 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낙관적 세계관을 표명하는 반면 준태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비관적 세계관을 표명한다. 그러나 이들은 각자의 세계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대에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각자의 세계를 부정하기보다 긍정하면서 충돌보다는 화해를 모색하기에 이른다.

준태와 민구는 군대시절의 전우사이로 준태의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삶의 태도는 민구의 현실적인 삶의 태도와 심한 이질감을 형성한다. 그리고 상대의 내면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서로의 세계를 부정하기에 이른다.

민구와 성호는 대학동창사이로 성호는 민구의 俗神的인 態度와 속물적 근성에 심한 반발감을 가진다. 즉 이상주의자인 성호의 삶의 태도와 현실주의자인 민구의 삶의 태도는 이질감과 거부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로써 민구는 성호의 교역차로서의 내면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처럼 허널주의자인 민구의 의식의 척도로는 유랑의 길을 자처하려는 준태의 태도나 참 사랑의 실천을 위해 모든 속세의 것을 버리는 성호의 태도에 공감을 형성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핀 타인과의 갈등에서 드러나는 것은 의식의 교류를 전제하지 않은 피상적인 인간관계로 인한 개인들의 소외이다. 개인들은 각자의 삶에 개입하거나 개입되기를 거부하면서 의식의 단절과 고립이 야기되고 단절된 의식에서 오는 세계관의 차이로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나무들 비탈에 서다』, 『일월』, 『움직이는 성』에서 표출되는 갈등의 전개양상은 한 개인의 내면자아와의 갈등과 개인을 둘러싼 인간관계에서 야기되는 타인과의 갈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작품들에서의 갈등전개는 우선 자의식이 강한 인물들의 내적고뇌와 방향을 다루어 가면서 이들이 현실에 대처하는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제시하고 또한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에서 야기되는 개인과 개인들의 갈등을 서술해 갔다. 이 세 작품에서의 갈등들은 비교적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개되는 데 작가는 이러한 갈등의 본래적인 원인을 개인 그 자체의 문제로 국한시키기보다 모순된

현실의 상황으로 확대시켰다.

앞에서 살핀 개인과 개인의 갈등의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녀관계에서 파급되는 갈등의 양상은 이상적인 사랑과 세속적인 사랑의 관계로 뗏어진 남녀가 벌이는 갈등이 주된 것으로 정신적인 유대를 중시하는 이상적인 애정관을 가진 남녀와 육체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세속적인 애정관을 가진 남녀의 갈등이 주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들 남녀들은 애정의 삼각관계로 묶어 볼 수 있는 데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 사이에서 혼돈을 느끼는 남자 주인공들이 이상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여성과 세속적인 사랑을 추구하려는 여성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세속적인 것을 떠나 이상적인 사랑을 추구하려는 여성들에게서 어떤 암시를 받고 갈등은 극복되기에 이른다.

다음으로 친구관계에서 파급되는 갈등의 양상은 이상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자와 현실 속에 파묻힌 현실주의자의 갈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데 이들의 갈등은 이상주의자가 이상을 쫓아 현실을 외면하면서 현실주의자가 현실만을 쫓아 이상을 외면하면서 악화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상주의자가 현실과의 조화 속에서 현실주의자와 긍정적인 타협을 모색하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 속에서 이들의 갈등은 극복되기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일월』의 가족관계에서 야기되는 갈등은 가족 구성원들의 이기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을 보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타인에게 드러내기를 거부하고 타인의 세계를 부정하면서 고립적인 관계를 악화시킨다. 그러나 이들 가족들의 갈등은 서로의 세계를 수용하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극복을 암시받는다.

이상에서 살핀 개인과 개인의 갈등의 유형들은 남녀관계에서 벌어지는 이상적인 남녀의 사랑과 세속적인 남녀의 사랑에서 야기되는 갈등과 친구관계에서의 벌어지는 이상을 추구하려는 이상주의자와 현실만을 쫓는 현실주의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벌어지는 이기적인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갈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개인들의 갈등들은 이상적인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이상과 현실에 조화를 이룬 이상주의자의 의지에 의해서 또한 이해와 화해를 동반한 가족관계를 통해서 극복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세

작품에서 표출된 개인들의 갈등양상을 통해서 소설의 주제가 어느정도 드러나는 데 우선 첫째 남녀의 애정관계에서 육체적인 쾌락을 전제로 한 애정보다 정신적 교류를 전제로 한 현신적인 이상적 애정에 긍정적인 암시를 보내면서 현대사회에서 쾌락 위주로 치달고 있는 남녀관계의 모순을 파헤치고 있다. 그리고 둘째 친구의 우정관계에서는 물질적이고 표면적인 이해를 전제한 우정보다 의식의 교류를 전제한 무보상적인 우정을 강조하면서 순수해야 할 친구와의 인간관계가 이기적인 관계로 치달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관계에서 효와 우애의 부재현상을 각자의 삶만을 중시하려드는 가족 구성원들의 고립된 모습을 통해 표출시키고 있다. 이상에서 드러난 개인들의 갈등의 양상들은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개인들의 갈등관계 설정으로 인간성이 부재한 황폐한 현실에서의 인간관계를 폭로하고 있다.

Ⅲ. 갈등의 해결

갈등은 소설이 전개됨에 따라 생성 변모되면서 플롯을 이끌어 간다. 소설의 갈등은 작품의 종결과 동시에 해소되기도 하고 고조되어 파탄에 이르기도 한다. 대부분 화해의 결말이라고 일컬어지는 갈등 해결은 주인공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지향하거나, 세계의 실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화해의 근거에는 새로운 세계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⁴⁵⁾ 갈등의 내용 못지 않게 갈등의 처리과정이나 방법도 중요하다.⁴⁶⁾ 소설의 결말에서 갈등의 매듭은 해결되거나 유보된다. 그러므로 소설의 결말에서의 갈등의 처리방법 또한 작품의 문학과 깊은 연관을 가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갈등의 명확한 결말처리가 소설작품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작가에 따라 시대에 따라 갈등의 해소는 유보될 수도 완전히 처리될 수도 있다.

황순원 후기장편에서 제시되는 소설의 갈등들은 인물들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지 못한 채 유보되기도 하고,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진 인물들의 세계와의 고통스러운 화해를 통해 전망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완전한 갈등의 해결을 유보시키는 것이 그의 문학적 특징이다.

황순원 후기장편 소설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자기원형⁴⁷⁾을 추구하려는 인간들의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제시되며 자기실현의 단계에 도달하려는 의지를 통해 구체화되고 해소되기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인물들은 자기원형의 단계에 도달하면서 비로소 자기동일성을 회복하게 되고 자기실현의 단계까지 추구하게 되면서 갈등이 극대화 된다. 이때 자기원형을 통해서는 무의식의 자기와 의식의 자아가 동일성을 회복하게 된다. 또한 자기실현을 통해서는 전체로서의 자기 동일성을 회복한 자아가 외부세계와의 동일성을 이루게 된다. 전자를 내적세계

45) 현길언, 『한국소설의 분석적 이해』 (문학과비평, 1990) PP.165

46)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2) PP 192

47) 자기원형이란 개인으로 하여금 그 사람 자신이 되게끔 하는 인간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근원적 가증성을 일컫는 것이다.

의 동일성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외적세계와의 동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동일성 회복의 과정은 내적세계와의 화해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고 자아와 외부세계의 동일성 회복의 과정은 외적세계와의 화해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여기에서는 소설의 갈등을 상황에 반응하는 인물의 대응방식에 따라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한다.

1. 자기동일성 추구 - 「나무들 비탈에 서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동호는 슬집 위안부와의 육체적인 관계로 인해 자기동일성 상실을 경험한다. 동호는 본능적인 육체적 쾌락에 만족하는 자아와 순수한 정신적 사랑을 추구하려는 자아의 욕구의 대립으로 갈등한다. 이때 자기동일성 상실을 일으키게 된다. 그는 옥주와의 최초의 교섭으로 심한 모욕감과 죄책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 또다시 그녀와의 만남을 시도한다. 반복되는 옥주와의 만남으로 허탈감에서 오는 아쉬움에 이어 친근감까지 느끼게 된다. 친근감으로 이어진 네번째 만남을 통해서도 정신적 순수함을 감지한다. 이와같이 동호가 옥주와의 첫번째 만남 이후 반복해서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는 것은 무의식의 자기와 의식의 자아의 분열로 인해 상실된 자기동일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그는 자기동일성에 도달함으로써 의식의 순수성을 되찾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순수성 회복을 위해 시도했던 잇다른 만남은 의외의 결과—숙에 대한 죄의식의 망각—를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끝내 동호는 숙이 보낸 마지막 편지로 심한 자기상실감을 경험한다. 그리고 자기상실감을 잊기 위해 옥주를 찾는다. 그러나 옥주와 마지막 만남의 순간 청년단장과의 교섭장면을 목격하고 심한 자기분열로 그들을 사살하고 만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동호는 숙에 대한 죄의식을 옥주와의 만남에서 느껴지는 허탈감 속으로 도피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아무 남자하고나 육체적 교섭을 서슴지 않는 옥주의 육체적 타락성을 통해 지금까지 망각했던 자신의 육체적 타락을 절감한다. 옥주를 사살하기 직전의 순간 그는 상실된 자기동일성을 인식하고 망각했던 숙에 대한 죄의식을 환기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동호가 옥주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는 것은 자기동일성 회복을 위한 시

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호의 행위는 내적세계의 동일성 회복만 가능하게 하는 데 그친다. 즉 동호의 자살행위는 자아와 외부세계의 동일성은 회복시키지 못한다. 그는 자기동일성 회복으로 자기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자아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나 내적세계에 몰입된 극단적인 행위로는 진정한 외부세계와의 동일성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다시말하면 내적세계의 동일성 회복은 이루었으나 외적세계와의 동일성 회복은 이루지 못한 것이다. 이는 외적세계에 대한 자아의 적극적인 인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선우상사 무의식에는 부모의 죽음에서 오는 상황에 대한 공포가 잠재되어 있다. 의식의 자아는 이를 잊어버리기 위해 상황과 대결을 시도한다. 그러나 상황에 대한 소극적인 대항으로 계속 내적갈등을 경험한다. 많은 피를 보기 위해 전투때마다 선두에 서기 시작하면서 자아는 의식의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동일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동일성의 상실에 대한 인식으로 갈등은 심화되기 시작한다. 자신이 예언자 예레미아의 모습을 닮을 수 없다는 그의 자각은 적극적인 자기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아니지, 아니야. 나 같은 건 어림두 없지. 항상 손에다는 장갑을 껴야
 하구 입언저리의 제스처루나 저우 위신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나 따
 위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없어. 더구나 내가 장갑을 껴야 하는 건 자
 네들 말처럼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구 사실은 과거에 이 손이
 저지른 부끄럼을 가리기 위한 절테니. 그러구 가끔 입언저리를 질룩저려
 야 하는 것두 누구에게 호령기를 보이기 위해서는 커녕 이 는으루 봐
 선 안될 걸 본 어떤 영상이 떠오르기 때문일거구. 48)

선우상사는 전쟁이 끝난 후 동호와 같이 자기동일성 회복을 시도한다. 전쟁 중 신의 존재를 부정하던 그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 것은 그러한 자기동일성 추구의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는 전체로서의 자기본연의 모습으로 回歸

48) 황순원, 『황순원전집』 제 7권 (문학과지성사, 1985) PP.323

되기를 바라나 끝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분열증을 일으킨다. 그는 정신분열 증세로 의식세계가 요구하는 행위들을 더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외부세계와 차단된 생을 영위해야만 했다. 이와같은 내적세계로의 침잠으로 자기동일성의 회복은 물론 자아와 외부세계의 동일성 추구마저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자아가 능동적 실천의지를 갖고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을 포기함으로써 비롯된 결과이다.

현재는 전쟁이 끝난 현실상황에서 심한 자기동일성 상실을 인식한다. 그의 자기 상실감은 전쟁중에 저지른 살인으로 인한 것이다. 자기 상실감을 인식하면서 삶에 회의와 권태를 느끼고 인간관계를 거부하는 등 전과는 다른 인격체로서의 생활이 시작된다. 그가 현실적인 물욕이나 세속적인 출세에 어떤 흥미도 느끼지 않고 무기력한 생활인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은 살인한 여인에 대한 죄의식이 그의 의식에 작용하여 내적세계가 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열의 상태를 인식함으로써 내적갈등이 시작된다. 그러나 내적갈등에서 비롯된 생활의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을 도피하여 어디론가 떠나는 일뿐이다. 그가 자행하는 의식의 망각을 초래하는 폭주나 계향과의 만남의 시도는 현실도피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이러한 그의 권태는 삶의 의욕의 상실에서 오는 자기포기로 설명할 수 있다. 자기포기적 행위들은 그로 하여금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부정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타인과의 인간적 유대를 거부하면서 현실에서 도피만 일삼았다. 현실의 탈출구로 미국 이민행을 꿈꾸는 것은 그의 도피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계향의 죽음을 방관하고 숙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도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또한 그러한 태도에서 연유하는 것들이다. 그가 끝내 내적세계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외부세계와의 통로를 트지 않은 까닭이다. 그가 자살방조 혐의로 투옥되는 것은 자학적인 태도의 일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자학적 태도로 끝내 자기동일성 회복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아와 외부세계의 동일성 회복마저 불가능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동호, 현재, 선우상사의 갈등해결은 자기동일성의 회복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이들의 갈등은 자기동일성 회복에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동호는

내적자아와 외적자아의 자의식의 갈등을 자기동일성을 회복하면서 극복하기에 이르고 현태와 선우상사는 자기동일성 회복에 실패하여 끝내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만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서의 갈등은 분열된 자기동일성 회복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전개되는 데 동일성 회복에 성공하는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를 제시하면서 자기분열 극복의 방식을 표출시키고 있다.

2. 세계동일성 추구 - 「일월」, 「움직이는 성」

『일월』의 기룡은 자신의 열등한 신분에 갈등하기보다 인간의 존재론적 고독으로 갈등한다. 그가 스스로 도수장 일을 선택하는 것은 신분계승을 위해서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존재론적 숙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도수장 일을 선택하여 인간존재의 문제로 自問하면서 자기동일성 회복을 시도한다. 그가 아버지의 백정세계에 대한 이상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백정이라는 것에 직업이상의 명분을 부여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끝까지 백정이라는 신분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한다.

사람은 외롭게 마련야.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구 사람을 죽이구 죽게 하는게 아닐까. 본시, 그리구 땅과 하늘이 피를 요구하구 있다구 봐. 어떤 외롭에서 벗어나려구 말야. 그 피란 반듯시 붉은 색의 유형의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가슴 속에 흐르는 피를 의미할 수도 있지. 49)

기룡은 일상인의 인습의 굴레⁵⁰⁾에서 과감히 뛰쳐나오나 그에게는 인간의 숙명적 고독이라는 존재론적 운명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외롭게 마련이라는 존재론적 고독을 인식한다. 존재론적 고독의 깨달음으로 신분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한다. 이러한 것은 실체에

49) 황순원, 『황순원전집』 제8권 (문학파지성사, 1985) PP.399

50) 천이두, 『종합예의 의지』 (일지사, 1974) PP.178

대한 객관적인 자각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기룡은 자신에게 주어진 외로움을 일시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 들지 않는다. 그가 술이나 광신적인 종교에의 몰입으로 외로움을 회피하려 드는 인간들에게 이질감을 느끼고 거부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백정의 세계에 광신적으로 몰입하는 아버지나 술에 의지하여 관념의 유희를 즐기는 무리들을 경멸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기룡의 외로움에 대한 존재양식이 인철의 마음의 눈에 진실의 실체로 반영되어⁵¹⁾ 인철로 하여금 객관적인 실체의 자각에 도달하게 한다. 기룡은 존재론적 외로움을 스스로 인식하고 감당하면서 자기동일성을 회복시키고 자신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인 자각을 하기까지 이른다. 그러나 자아를 외부세계에 드러내지 않고 자기실현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그는 인간에게 숙명적으로 부여된 외로움을 인간세계 속에서 해결하지 않고 타인과의 고립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는 데서 자기실현을 포기하게 된다.

인철의 내적세계와의 갈등은 신분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백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군중 속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즉 사회의 인습으로 인한 신분의 소외감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그가 신분의 열등에서 오는 소외감으로 내적세계와 갈등하는 것은 백정의 실체를 긍정하려하는 자아와 부정하려는 자아가 대립하기 때문이다. 이때 자기 상실감을 경험하고 내적갈등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철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기동일성을 찾기 위해 사촌 기룡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를 만나면서 객관적인 위치에서 백정의 실체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백정이라는 사실에 갈등하지 않아도 되었다. 또한 인철은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백정의 실체에 대해 바라보면서 인간소외에서 오는 고독의 문제를 인식한다. 이때부터 존재론적 문제로 오는 갈등을 겪는다. 즉 신분으로 인한 내적세계와의 갈등이 존재론적인 문제로 확대되게 되는 것이다. 백정이라는 열등감 때문에 나미와 다혜 사이에서 방황하기도 하나 자기동일성을 회복하면서 이 또한 극복한다. 이때부터 나미와 다혜에게서 객관적 인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 자기세계에 집착하는 가족들이나 큰아버지 본돌영감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인철이 타인의 삶에 대해 객관적으로

51) 천이두, 앞의 책, PP. 183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대로 나는 관객의 입장에서 다혜와 나미를 대해야 하는가. 나는나, 너는 너라는 인간관계란 있을 수 없지 않은가. 인간이 소외당한 자기 자신을 도루 찾으려면 우선 각자에게 주어진 외로움을 참고 나가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꺼야. 기룡의 말이었다. 그건 그렇다. 하지만 외로움이란 인간과 인간이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오는게 아니지 않은가. 서로 부딪칠 수 있을 때까지 부딪쳐 본 다음에 처리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기룡을 만나야 한다. 만나 얘기해야 한다. 52)

위의 예문과 같이 인철은 인간관계를 떠나 자신만의 세계에 칩거하는 것으로 진정한 세계와의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외로움의 실체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자기고독에서 진정한 탈출을 시도할 수 없다는 것도 인식하게 된다. 그는 또한 자기만의 세계를 고집하고 타인과의 인간관계 단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깨닫는다.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기룡이 소외를 소외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모든 인간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외부와 차단된 자아 동일성⁵³⁾만을 추구한 데서 오는 것이다. 외부와 차단된 동일성은 진정한 동일성이라 할 수 없다. 54) 그러나 자아와 세계가 진정한 화해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동일성의 회복은 달성된다. 인철은 소설의 결말에서 외부와 차단된 기룡의 세계를 인식하고 외부세계와의 적극적인 화해를 결심하면서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을 달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소설의 결말에서 인철의 자기실현 의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할 외로움을 인식하고 기룡과의 만남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암시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행위는 보여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작품에서는 인철의 세계와

52) 황순원, 『황순원전집』 제8권 (문학과지성사, 1985) PP.453

53) 한승옥, “황순원장편소설연구” 『한국현대장편소설연구』 (민음사, 1990)

54) 한승옥, 앞의 책

의 화해 의지를 통해 자아와 세계동일성을 암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접근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인철이 기룡과는 달리 더이상 자기내부에만 칩거하지 않고 세계 밖으로 나오으로써 자아와 세계의 화해의 모색을 긍정적으로 젓시하고 있다. 이러한 암시는 인철이 새로운 인간관계 즉 인습으로서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깨트린 이후 새로운 차원에서 재편성 되는 인간관계⁵⁵⁾를 전제로할 때에만 인간의 존재론적 고독은 허물어질 것이라는 그의 독백투의 지문에서 두러지게 나타난다.

이상에서 『일월』에서는 백정이라는 상징적인 조건을 인물들에게 부여하고 이러한 숙명적 인간조건을 주인공인 인철과 기룡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극복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백정의 일을 거부하지 않고 수행하는 기룡은 백정의 객관적인 실체에 대해 인식하면서 자기동일성에 도달하나 세계와의 동일성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룡의 자기 실체에 대한 인식의 태도는 인철의 내면세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철의 자기동일성 회복에 전초를 마련해 준다. 작가는 기룡보다 인철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집중적으로 추구하면서 인철이 자아와 세계의 대결과 화해를 어떻게 모색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움직이는 성』에서의 준태는 어렸을 적에 체험했던 죽음의 잠재의식과 열등감, 죄책감으로 성인이 된 후 누구와도 인간적인 교류를 단절한다.⁵⁶⁾ 그의 유랑민 근성의 발로는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만의 하숙생활에서 오는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이혼으로 얻게 된 자유스러운 생활에서 안도감을 감지하는 것은 정착에 대한 거부의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의식적으로 정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다. 우리민족의 근원심성을 유랑민근성에 입각하여 냉철하게 바라보는 역사의식은 정착에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우리민족은 정착성이 결여된 열악한 민족성 때문에 참다운 종교나 신앙의 존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은 그가

55) 천이두, 『종합에의 의지』 (일지사, 1974) PP.185

56) 한승욱, 앞의 책, PP.310

의식적으로 정착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정착해야 한다는 준태의 자각은 희생적인 인간적 체온을 지닌 지연이라는 여성과의 만남을 계기로 강화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정착을 열망하는 자아와 정착을 거부하는 자아사이의 분열에서 자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 지연과의 만남 뒤에 따르는 준태의 호흡기 질환은 타인과의 관계를 두려워 하고 정착을 거부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질병이다. 친식발작 증세가 악화되면서 그의 내적세계와의 갈등은 심화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자기동일성은 심한 분열상태에 놓이게 된다.

도대체 나는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 건가. 지연을 그도록 갈망한 건 누구고, 이를 용납않는 건 누구냐. 그 어느 쪽도 거짓은 없다. 단지 지연을 다쳐서는 안된다. 그러면서 상반된 두 가지를 채취처럼 지닌 체 나름대로의 유랑민 같은 생활을 감당하는 수 밖에 없는 거다. 57)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준태는 지연을 거부하는 유랑하려는 자아와 지연을 갈망하는 정착하려는 자아의 대립으로 갈등한다. 유랑하려는 자아와 정착하려는 자아는 어느 쪽도 거짓이 없는 준태 본연의 자아들이다. 이러한 본연의 자아들이 합일되지 못하고 분열을 일으킴으로써 상실감에서 오는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준태가 유랑의 길을 자처하면서 지연의 곁을 떠나는 것은 분열된 자기동일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는 본연의 자기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러나 준태는 유랑을 자처하면서 최후의 가능성인 지연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이러한 준태의 비극적인 죽음의 결과는 지연과의 합일을 갈망하면서도 자아가 내적자기에 일치시킬 수 없었던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58) 그러므로 자기동일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행한 유랑의 길이 오히려 동일성을 더욱 상실시킨 결

57) 황순원, 『황순원전집』 제9권 (문학과 지성사, 1985) PP. 438

58) 서경희, “황순원소설연구” 『어문학연구』 제5집 (전북대어문학연구, 1985)

과가 된다. 유랑의 길을 자처하고서도 계속 천식에 시달림을 당하는 것은 완전한 유랑민이 되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나 죽음 직전 보게 되는 자연과 자신의 사랑의 합일을 통해 준태는 자기동일성을 회복은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꼭 제때에 와주었어. 다시는 우리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떨어지지 않구말구. 충족한 행복감이 준태의 전신을 적셨다. 그러자 숨이 답답해지면서 기침이 솟았다. 오래 연속되지는 않았다. 대신 가슴이 뼈개져왔다. 조금 가라앉았는가 하다가는 더 심해지곤 했다. 새역새역 숨소리가 약해지면서 간격을 벌려갔다. 준태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가자, 이제 가자! 59)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준태가 자연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은 정착을 의미하는 것이다. 죽음 직전 자연을 따라가는 환상을 보는 것은 정착하려는 의지를 암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때 비로소 자기상실감을 극복하고 자기동일성을 회복시키게 된다. 그러나 준태는 죽음의 순간에 자기원형을 발견하고 자기동일성의 단계에는 이르나 자기실현의 단계를 통한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 회복에는 이르지 못한다. 자아와 세계의 화해에서 오는 합일을 얻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성호는 한 여자와의 불륜관계로 심한 자기상실감을 경험한다. 그러나 홍여사의 진실이 담긴 숨겨진 일기가 공개되면서 상실된 자기동일성을 회복시키기에 이른다. 성호는 세상에 드러내기를 꺼려했던 자신의 비밀의 노출로 새로운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다. 그는 과거의 폭로로 받게 될 세인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자신과의 관계로 인해 홍여사가 치렀어야 했던 고통을 인식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깨어져서 다시 빛어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자기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자기 실체를 인식한 성호는 자기 과거의 죄의식에서 왔던 자기상실감을 극복하게 된다. 자기 실체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으로 그는 자기원형에 도달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성호에게는 자기실현의 과제가 주어지게 된다. 자기실현의 과제는 전체로서의 가능성을 지닌

59) 황순원, 앞의 책, PP. 446

자기원형을 의식에 투영하는 일이다. 자기실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호는 개인의 속죄를 위해 선택했던 교역자의 길을 버리고 판자촌을 들어가 실천적인 사랑을 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호의 의지는 외부세계와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대결과 화해를 모색하려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가 판자촌의 밀바닥 생활을 자처하고 그곳 주민들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그들을 억압하려는 외부세력에 저항하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려는 모습은 자아의 의식화를 통한 자기실현의 실천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작품의 결말부분에서 성호는 자연의 눈을 통해 <창조주의 눈>을 의식하고 진정한 구원의 길을 암시받는다. 창조주의 눈은 모든 악과 선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눈이다. 이러한 창조주의 사랑으로 인간구원의 가능성을 시사받는다. 유랑민 근성의 극복도 창조주의 사랑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인식의 결과에 이른다. 정과 반의 사랑의 합일을 이룰 때 모든 것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은 자기원형의 발견을 통한 자기실현의 의지로도 설명할 수 있다. 성호는 자아 속에 내재된 정과 반의 철저히 인식을 통해 어떤 합일점을 발견하고 실천적 의지를 통해 자기실현의 길에까지 이르렀을 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처럼 세계에 대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성호 자신을 세계와의 타협이나 도피가 아닌 화해의 길로 이끈 것이다. 성호는 자아의 동일성을 세계와의 동일성으로까지 이끔으로써 갈등 해소 위한 모색의 길을 탐색하게 된다. 여기서는 선택받지 못한 이웃들과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으로 교역자의 길을 버리고 진정한 신앙인으로써 살아가려는 성호의 의지적인 삶의 모습이 제시됨으로써 세계와의 동일성은 회복된다.

이상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움직이는 성』에서는 한민족의 유랑민 근성을 상징적인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주인공들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준태는 무의식에 존재하는 정착을 거부하는 유랑민 근성으로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성호는 민족성으로 야기된 참신앙의 부재로 심한 좌절을 경험한다. 이들은 자기원형의 발견으로 자기실체를 객관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준태는 자기동일성의 상태를 자아와 세계 동일성의 과정에까지 이끌지 못하고 폐배하고 만다. 반면 성호는 자기 실현을 통한 세계와 자아의 화해를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세계와의 동일성까지 회복시키기에 이른다. 즉 성호가 자기

모순을 발견하고 참 사랑의 실천을 위해 어두운 이웃들의 삶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나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에게 사랑이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하는 노력들은 적극적인 세계와의 화해를 통한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 회복의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 작품에서의 갈등해결은 완전한 해결이라기보다 해결 지향을 위한 암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서는 주인공들이 자살이나 살인미수 혹은 정신병자로 남아 있어 갈등이 해결되었다는 느낌보다 변모 악화된 감이 있다. 그러나 소설의 말미에 속의 삶에 대한 강렬한의지를 표출시킴으로써 긍정적인 해결의 암시를 남긴다. 그리고 『일월』에서는 인철의 독백 투의 지문을 통해 갈등해결의 암시를 보였고 『움직이는 성』에서는 성호나 지연의 삶의 단면을 제시함으로써 갈등해결의 암시를 드러냈다. 대체적으로 이 세 작품에서의 갈등들은 파국이나 행복한 결말로 완전하게 결론지어지지 않는다. 유기적으로 조직된 갈등의 양상들이 사건의 진행에 따라 제시되다가 소설의 결말에서 완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된 모습으로 남아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일월』과 『움직이는 성』에서의 갈등해결을 세계와의 동일성 추구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세계와의 동일성 추구 방식이 두가지로 제시된다. 하나는 자아와 세계의 적극적인 대결을 통한 동일성 추구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아와 세계의 소극적인 대결을 통한 방식이다. 전자의 방식은 『움직이는 성』의 주인공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고 후자는 『일월』의 주인공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 드러난다. 이들의 삶의 태도는 앞에서 살핀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주인공들의 그것과는 달리 자아가 세계와의 정면대결을 시도하고 화해를 모색하고 있다. 이로써 두 작품에 이르러서는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서 보다 적극적인 갈등해결이 제시되고 있고 자아와 세계와의 적극적인 대결의 모색으로 긍정적인 삶의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IV. 갈등구조에 따른 인물들

황순원 장편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비중이 큰 인물들은 정신적으로 <뿌리 뽑힌 자>의 삶⁶⁰⁾을 영위하는 인간들이다. 이들은 적응하기 힘든 현실의 조건 속에서 방황하는 소시민들이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반응은 개인차에 의해 상이하게 제시된다. 모순된 조건을 부정하여 패배하기도 하고 순종하여 타협하기도 하고 대결을 시도하여 극복한다. 예를 들면 『카인의 후예』의 박훈과 『인간접목』에서의 유선생,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동호, 현대 『일월』의 기룡, 『움직이는 성』에서의 준태는 역사적 조건이나 사회적 조건에 이질감을 경험하고 패배하며 『인간접목』의 종호,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숙, 『일월』의 인철, 『움직이는 성』의 성호는 자아와는 이질적인 현실의 조건과 대결하여 극복을 모색하고 『인간접목』의 홍집사, 『나무들 비탈에서다』의 윤구, 『일월』의 상진, 인호 『움직이는 성』의 민구는 현실의 조건에 거부감 없이 수락한다. 위에서 제시한 박훈류의 인물들은 대부분 지적 수준이 높은 지식인들이다. 이들은 현실의 상황적 모순을 인식하나 적극적인 대결을 기피하는 태서 좌절을 경험한다. 종호류의 인물들도 자의식의 욕구가 강한 지식인들로 이들은 현실의 상황적 모순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한다. 홍집사류의 인물들도 고등교육을 이수한 지식인들로 이들은 모순된 현실에 자아를 적당히 적응시키는 태서 안주하려 한다. 이상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황순원의 장편소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지식인들의 세계에 대한 자아의 대응방식이나 삶의 방식 등을 통해 당대의 현실과 사회에의 <뿌리 뽑힌자>들의 삶을 드러내 보여준다.

황순원 장편소설에서는 남성인물 못지 않게 여성인물들도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등장한다. 여성인물들은 남성인물들과 달리 초기장편에서는 한국의 전형적인 인종형의 여인상이 긍정적으로 제시되다가 후기장편에 들어서면서 능동

60)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2) PP.142

적이고 적극적인 현대의 여인상이 제시된다. 그러나 전기장편에서의 인종형인 희생적인 여인상이 완전히 지양된 것은 아니다. 전기장편의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들이 그대로 후기장편의 여인들에게까지 전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별과 같이 살다』의 곶녀나 『카인의 후에』의 오작녀는 한국의 전형적인 여인상으로 황순원이 긍정적으로 제시한 인물들 중의 하나이다. 이들 여인들은 특유의 본성인 소박함에서 오는 부끄러움과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남에게 정성을 다하는 희생과 인내의 소유자들이다. 후기장편의 여성인물들은 세속적인 사랑을 갈망하는 이기적인 여인상과 이상적인 사랑을 갈망하는 자기 희생적인 여인상들이 제시된다. 전자에 속하는 인물들로는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옥주, 『일월』의 나미, 『움직이는 성』의 창애가 부정적인 인물로 제시되고, 후자에 속하는 인물로는 장숙, 다혜, 지연, 홍여사가 긍정적으로 제시된다. 소설의 행동은 인물에 의해 이루어지고 인물의 형태를 통하여 소설의 구조에 접근할 수 있다. 소설 내에서 전개되는 모든 사건은 인물을 통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물과 행동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볼 수 있다.⁶¹⁾ 소설에 있어서 행동이란 작품 속에 설정되어 서로 대립하거나 하나로 합쳐지는 힘들의 조작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행동의 각 순간은 인물들이 서로를 추적하고 동맹관계가 되고 혹은 대결하여 하나의 갈등적 상황을 이룬다.⁶²⁾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핀 갈등양상과 해소과정을 근거로 인물의 유형분류를 하여 그 유형적 특징을 살피고, 그러한 유형별 인물들이 소설의 갈등을 이끌어가는 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에 대해서도 살피고자 한다.

1. 주동인물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갈등의 전개와 해결에 있어서 중심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소설의 사건과 행위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인물로는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동호, 현태, 『일

61) 김천혜, 『소설구조의 이론』 (문학과지성사, 1990) PP. 179

62) 김화영, 『소설이란 무엇인가』 (문학사상사, 1986) PP. 231

월』의 인철, 기룡, 『움직이는 성』의 준태, 성호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작가 자신이 긍정하려는 프로타고니스트로 이들에 대한 작가의 긍정의 감정은 독자들에게까지 전이된다. 그리고 성격을 창조하는 과정에서도 복합적이면서 입체적인 방법으로 묘사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개방적 남성상과 폐쇄적 남성상을 들 수 있다.

우선 개방적 남성상에 속하는 인물로는 『일월』의 인철, 『움직이는 성』의 성호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자기모순을 인식할 만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다. 인철은 자기에게 주어진 외적상황인 신분때문에 갈등을 경험하고 성호는 목사 부인과의 불륜으로 갈등을 경험한다. 이들은 자신을 둘러싼 외적조건으로 자기의 내면세계와 갈등한다. 이러한 내적갈등은 자기모순을 인식하기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내적갈등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모순의 인식에서 오는 동일성 상실 때문이다. 또한 자기 동일성 상실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은 감수성이 예민한 이들의 강한 자의식 때문이다. 이들의 심리적 현상의 두드러진 특징은 사변적이라는 데 있으며 이들은 강한 자의식에의 욕구를 가지며 등장한다. 인철이 신분의 열등감으로 자기 상실감을 경험하는 것과 성호가 과거에 대한 죄의식으로 자기 상실감을 경험하는 것은 자기의 실체를 찾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이다.

인철이 기룡과 접촉하면서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로 갈등하고 성호가 홍여사와의 관계로 인한 내적갈등을 극복한 뒤 진정한 신앙과 사랑의 실천문제로 갈등하는 것 또한 자의식에의 강한 욕구의 반영이다. 이들은 자신들 갈등의 변모과정에서 자기원형을 발견하고 자기모순의 인식과 동시에 되고 자기동일성을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실현을 통한 자아와 세계와의 동일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존재와 이상을 자기만의 세계에서 구축시키기보다 외부세계를 통해 모색하고자 했다. 인철이나 성호는 현실에서 주어진 사회적 역할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로 회피하거나 맹목적인 복종으로 순응하지 않는다. 자각된 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적 역할에 참여하기도 하고 물러나 앉아 자기내부 세계에 자신을 맞추면서 자기성숙에 도달하고자 했다. 인철이 자신의 신분을 더이상 숨기지 않고 폭로하는 것이나 자신의 실체를 찾기 위해 백정의 세계에 접근하는 것은 자기실현에 도달하기 위한

몸짓이다. 그리고 관객으로서의 인간관계를 버리고 부대낌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되찾으려 했고 세계 앞에 자아를 개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성호는 홍여사와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긍정하여 자신의 실체를 認智하려 했고 교역자의 길을 버리고 실천적인 사랑으로 인간구원의 길에 나선다. 이 또한 자기 실현에 도달하기 위한 모색이자 고행으로 볼 수 있다. 그도 진정한 인간존재의 진실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세계 앞에서 자아의 개방을 꺼리지 않았다. 그는 자아와 세계의 진정한 대결을 통해 화해를 모색하고자 했다. 이들 개방적 자아는 세계와의 통로를 트고 세계와의 적극적인 대결을 모색하고 내면세계의 자아와의 갈등은 물론 세계와의 갈등까지 극복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자아와 세계의 갈등극복의 암시가 『일월』의 인철의 모습을 통해 시도되었다면 세계와의 갈등극복의 구체적인 반영은 『움직이는 성』의 성호의 모습을 통해 시도된다. 그러나 갈등이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졌다기보다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작품을 매듭짓고 있다.

다음으로 폐쇄적 남성상에 속하는 인물로는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동호 현태, 『일월』의 기룡, 『움직이는 성』의 준태를 들 수 있다. 이들도 자기 동일성 상실을 인식하면서 심한 내적갈등에 빠지게 된다. 이들의 심리적 갈등은 죄의식으로 자기모순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동호가 육체의 순결을 잃고 가중되는 심리적 압박감을 처리 못하는 것이나 현태나 기룡이 살인에 대한 죄의식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처리 못하고 자신의 내면세계로 파고 드는 것은 이들의 공통적인 심리적 특징들이다. 『움직이는 성』의 준태는 어릴적 기억에서 오는 굴욕감과 자살에 대한 죄의식으로 유랑을 자처하게 되고, 유랑과 정착의 길 사이에서 심한 내적갈등을 겪게 된다. 상황으로 인한 죄의식의 경험이나 자책으로 이들은 내적자아와 외적자아의 분열에서 야기되는 동일성 파괴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갈등한다. 그러나 성격상의 소심함으로 이들은 외부세계와 내면세계의 통로를 차단한 채 자신들의 노출을 회피했다. 내면세계로의 침거로 인한 회피로 외부세계와의 대결은 좌절된다. 이들의 세계에 대한 은둔적 태도는 갈등의 극복에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이들은 방탕한 생활의 자행으로 자신들의 내면의식을 은둔시키고자 했으며 이로써 내적갈등에서 오는 죄의식을 마비시키기려 했다. 이러한 것은 자기의 실체를 망

각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순수성이 파괴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한 동호가 옥주를 죽이는 것은 그녀가 제공했던 의식의 마비를 초래하는 안온한 허탈감에서 탈출하기 위한 행위이다. 동호는 자신 또한 자살하는 것으로 순수성을 회복시키고 자기 동일성을 이루고자 했다. 그러나 동호는 자기 동일성을 회복시키기는 하나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 회복에까지는 접근하지 못한다. 현대도 자신의 내적갈등의 원인이 자의식 과잉에 있다는 자각을 한다. 자의식 과잉을 처리하기 위한 전정설을 의식하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식의 전정을 수행시키지는 못했다. 그리고 안온한 안식을 제공하던 제향이 자살하는 것을 방관하고 감옥에 수감되면서 자기동일성 회복마저 포기한다. 동호는 자기모순을 해결하고 자기 동일성에 도달하나 세계와의 동일성에는 도달하지 못한채 죽음의 길을 선택했고 현대는 자기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동일성마저 좌절된다. 기룡 또한 내면세계에만 몰입한 채 외부세계에 자신을 노출시키려 들지 않았다. 이 또한 현실에 대한 폐쇄적 태도로 볼 수 있다. 외부세계에 대한 폐쇄적 태도로 이들은 모순된 현실에 더이상 入地할 수 없게 된다.

준태는 자기동일성 상실을 회복시키기 위해 유랑의 길을 자처한다. 준태가 유랑의 길을 자처하는 것은 세계와의 대결을 회피하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동일성을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준태가 자기모순을 극복하고 자기동일성을 회복시키는 것은 자연과의 합일을 긍정하면서부터이다. 즉 정착의 길을 선택하면서 자기 동일성을 회복시키게 된다. 그러나 준태는 정착을 선택하는 순간 죽음을 맞아야했다. 준태는 죽음으로 자아와 세계와의 동일성 회복을 차단한다.

위에 열거된 인물들은 자기모순을 발견하는 데서 자기 동일성 상실을 인식하게 되고 내적세계와 갈등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모순을 극복하나 결국 낙오자의 길을 걷게 된다. 동호, 현대, 준태는 자기파괴적인 반항을 감행⁶³⁾ 함으로써 현실에 패배하게 된다. 이들은 자아를 세계 앞에 개방하기를 거부한다. 자아를 드러내기보다 철저히 다른 모습으로 위장하거나 은폐시킨다. '동호, 현대

63) 이태동, “실재적 현실과 미학적 현현” 『황순원전집』 제12권 (문학과지성사 1985) PP. 85

가 의식의 방각을 초래하는 알콜이나 여자와의 성관계로 자신을 도피시키고 기쁨이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거부하여 혼자만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고 준태가 현실에 정착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방랑을 자처하는 것들은 세계와의 진정한 대결을 회피시킨다. 그러므로 이들 폐쇄적 자아는 세계와의 적극적인 대결도 모색하지 못한 채 패배하고 만다. 그러나 작가는 이들 폐쇄적 자아에게 개방적 자아에게 보였던 것과 같은 애정을 보인다. 이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비난보다는 이러한 행위를 자행할 수 밖에 없었던 데 원인을 제공한 왜곡된 현실에 대해 암묵적인 질시를 던진다. 즉 이들은 보편적인 가치관으로는 부정적인 인물이지만 작가의 서술을 통해 결국 긍정적인 인물로 되는 것이다.

2. 반동인물

여기에 속하는 인물들은 소설의 갈등을 악화시키거나 경직시키며 등장한다. 이들의 행동은 주동인물의 행동에 방해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작가가 부정적으로 제시하는 안타고니스트로 주동인물과 대립관계를 형성한다. 이들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인 시각은 또한 독자들에게 전이된다. 이들의 성격창조는 주동인물에 비해 단순하거나 평면적으로 묘사된다. 즉 이들 인물들은 주동인물의 갈등이나 행위를 부각시키는 데 보조적 위치를 점한다. 이런 인물로는 기회주의적 남성애 속하는 인물과 이기주의적 여성애 속하는 인물 들 수 있다.

기회주의적 남성애 속하는 인물로는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윤구, 『일월』의 상진영감과 인호, 『움직이는 성』의 민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현실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가진 인물들이다. 이들은 자기모순의 인식에서 오는 내면세계와의 갈등을 겪지 않는다. 현실이 요구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데서 만족하는 이들에게 내적세계와의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윤구가 동호나 현태가 경험하는 자아와의 갈등의 늪에 빠지지 않고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기회주의적 근성으로 현실에 대처했기 때문이다. 전쟁중의 상황에서나 전후의 상황에서 변함없이 충실한 생

활인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고 미란의 죽음으로 인해 죄의식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내적자아와 외적자아의 분열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자기상실감을 인식하지 못한다. 윤구는 자아와의 갈등에 고뇌하지 않을 뿐더러 세계와의 갈등에도 고뇌하지 않는다. 이들의 이해타산적인 속물적사고방식이 자아와의 갈등은 물론 세계와의 갈등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월』의 상진영감이나 인호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숙명인 백정이라는 신분을 거부하려 애쓴다. 상진영감은 사업가로 변신을 시도하면서 숙명을 회피하려고 했고 인호는 가족과 절연하면서까지 숙명을 회피한다. 이들은 현실이 요구하는 사회적 역할을 아무 거부없이 수행하면서 어떤 갈등도 경험하지 않는다. 상진영감과 인호는 백정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신분을 은폐시키려고만 했다. 이러한 신분위장의 방법으로 상진영감과 인호는 신분상승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되고 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한다.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속물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삶의 방식을 익히는 일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해와 욕구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외면하면서 살아간다.

『움직이는 성』의 민구는 샤머니즘 세계에 깊은 관심을 가진 민속학자로 샤먼의 세계를 긍정하는 나뉠대로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현실적인 욕망들은 끝내 샤먼세계를 외면하게 하였고 기독교인으로 귀의하게 만든다. 상황에 따라 샤먼세계와 기독교 세계를 넘나들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세계와 어떠한 갈등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현실이 요구하는 사회적 역할을 적당히 절충시켰기 때문이다. 즉 샤먼세계에 대한 학문적 호기심을 발단으로 야기되어진 박수 변씨와의 비도덕적인 관계와 교회 장로 딸인 은희와의 관계를 내적갈등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상황에 따라 자기보호색을 철저히 연출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현실상황에 따른 자기보호색의 연출로 자아의 분열은 인식할 수 없게 되었고 자기 동일성 상실도 인식할 수 없게 되었다. 윤구와 마찬가지로 민구가 준태나 성호가 자기모순의 인식에서 오는 내적갈등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철저한 속물근성의 생활인으로 만족하기를 자처했기 때문이다. 윤구가 양계장의 성업으로 이루어질 물질적 풍요만

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투자하고 민구가 학자로서의 꿈을 버리 기업가로서의 출세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자 할 때 이들에게 자기모순의 인식과 자기동일성 상실의 인식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현실의 모순적 상황과 대결하기보다는 안주하고 타협하는 데서 현실적 안정만을 도모하고자 함으로써 이들 지적 속물형의 인간들⁶⁴⁾에게 세계와의 갈등이나 대결은 현실적응에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기적 여성상에 속하는 인물로는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옥주, 미란, 『일월』의 나미, 『움직이는 성』의 창애이다. 이들은 개성이 뚜렷하고 자기주장이 강한 인물들로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애정의 대상과 갈등하게 된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옥주는 동호와의 관계를 사무적으로 처리하고자 했고 미란은 애인 윤구의 친구인 현태와도 관계를 가진다. 『일월』의 나미는 인철의 의식의 방향을 회피하려한다. 『움직이는 성』의 창애는 준태의 유량민 근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이들의 애정의 대상에 대한 이기적인 태도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애정의 대상의 행위를 척도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애정의 대상과 내면의식 교류의 부재로 대상의 의식의 방향이나 현실의 갈등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현실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애정관을 가진 이들은 대상과의 진정한 의식의 교류없이도 애정관계를 유지시킨다. 그러나 의식의 교류가 부재하는 이들의 애정은 종국에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 옥주는 동호의 총에 사살되고 미란은 현태에게 버림받고 윤구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죽어간다. 나미는 인철의 피동적인 애정을 감수해야했고 창애는 준태와 이혼하고 미스터 강과의 애정도 만족하지 못한다. 자신들의 대상에 대한 포용적인 애정의 결핍으로 대상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초래되나 이들은 소멸하는 대상과의 애정에 대해 어떤 능동적인 대처도 포기하고 악화된 상황만이 남아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이 제시한 기회주의적 남성상과 이기적 여성상으로 대표되는 인물들은 주동인물들의 의식과는 반대의 행위를 수행하면서 소설의 갈등을 전개시키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64) 천이두, “종합애의 의지” 『황순원전집』 제12권 (문학과지성사, 1985) PP. 143

3. 매개인물

여기에 속하는 인물들은 주동인물이 못지 않게 소설 갈등의 전개와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의 행동이나 의식은 소설갈등의 전개와 해결에 있어 주동인물들의 의식에 암시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중심인물의 의식의 변모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주로 희생적인 여인들로 이들은 성격창조에 있어서도 복잡하기보다 단순하여 평면적으로 제시된다. 또한 갈등양상에 있어서도 단선적이다.

구체적인 인물로는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장숙, 『일월』의 다혜, 『움직이는 성』의 지연과 홍여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나 사랑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상적인 사랑의 의지를 애정의 대상들이 거부함으로써 갈등하게 된다. 숙은 정신적인 사랑을 도피한 채 자살해 버린 동호의 죽음으로 갈등하고, 다혜는 현신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나미에게 연연해 하는 인철의 태도에 갈등한다. 지연 또한 희생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유랑의 길을 자처한 준태의 의지로 갈등하고 홍여사는 자신들의 사랑을 불륜으로 인식하는 성호의 고뇌로 갈등한다. 그러나 애정의 대상에 대해 무보상의 희생적 사랑을 베푸는데 만족하는 이들은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애정의 대상과의 갈등을 긍정적인 인간애와 자기의지로 극복한다. 이들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추구함으로써 세속적 사랑을 이상적 사랑으로 승화시킨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숙은 동호의 죽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순수성을 앗아간 현태를 이해하고자 한다. 『일월』의 다혜는 자신의 현신적인 애정을 거부하는 인철의 일방적인 태도와 선택을 이해한다. 『움직이는 성』의 지연은 자신의 사랑을 거부하고 유랑을 고집하는 준태의 의지를 이해했고, 홍여사는 진실한 자신들의 사랑을 은폐시키고자 하는 테서온 성호의 방황을 이해했다. 애정의 대상에 대한 무한한 이해는 긍정적인 인간애로 얻어지는 것이다. 숙은 동호의 죽음의 원인을 알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주위 인물들을 찾아나선다. 다혜는 인철의 방황을 감지하고 인철이 사랑하는 나미와의 만남을 시도한다. 지연은 준태의 유랑의 길을 끝까지 따라나선다. 홍여사는 불

룬에 대한 성호의 죄의식을 소멸시키기 위해 자신의 일기를 남겨둔다. 이러한 이들의 애정의 대상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는 강인한 사랑의 의지에서 오는 것이다. 이들은 폐쇄적 자아가 달성하지 못했던 갈등해결을 위해 대리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개방적 자아의 갈등해결에 어떤 암시를 마련하기도 하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단 다혜는 제외된다. 『일월』에서는 기룡이 중심인물과 매개인물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그러나 인철이 자신이 백정이라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드러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숙은 현태나 동호가 극복하지 못했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초로써 현태의 아이를 임신한채 주어진 자신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 떠난다. 지연은 준태가 자기동일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유도했고, 성호가 창조주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홍여사 또한 성호의 자기동일성 회복과 구원의 길 모색에 비중있는 '암시를 제공한다.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인물의 행동과 갈등양상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소설의 갈등은 중심인물의 행동에 의해 대부분 전개되고 해결점을 지향하여 나가게 된다. 즉 소설의 중요한 행동을 이끌어 가는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대인물들은 중심인물의 행동에 반동자로서 소설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들은 중심인물들의 갈등과 행동을 성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제시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심인물의 행동이나 갈등에 비해 이들의 행동이나 갈등은 느슨하다. 매개인물들은 중심인물의 행동이나 갈등을 어떤 지향점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는 이들의 행위로 중심인물의 의식이나 행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지는 것으로 드러난다. 즉 이들은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중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들에서는 주동인물의 행위와 반동인물의 행위의 대립에 의해 갈등이 주로 전개되고 매개인물에 의해 갈등해결의 조짐을 보인다. 소설의 전반적인 행위를 이끌어 가는 주동인물들은 갈등의 전개와 해결에 있어서도 중심역할을 하고 반동인물들은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경직시키고 매개인물들은 갈등해결에 있어서 촉매자의 역할을 한다. 세 작품에서는 주동인물로 세계에 대해 개방적 자세를 취하는 극복적인 지식인과 세계에 대해 폐쇄적 자세를 취하는 폐배적

인 지식인 유형을 내세워 이들이 소설의 갈등을 이끌어 가는 모습을 다각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반동인물로는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속물형의 인간들을 제시하여 이들이 주동인물과 대립하면서 어떻게 소설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지 보여주었고 매개인물로는 선천적으로 모성애를 소유한 자기희생적 여성들을 등장시켜 이들이 주동인물의 의식의 변화에 어떻게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설의 갈등을 해결로 이끌게 하는 지 드러내고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황순원 후기장편에 나타난 갈등의 전개, 갈등의 해결 및 갈등구조에 따른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황순원 후기장편에서는 한 개인의 내면세계의 갈등양상에 주목하여 소설을 전개시키고있다. 이들 작품에서 나타나는 내면갈등은 주로 개인의 심리적 특질과 성격에 의한 것이나 그 이면에는 항상 현실과 개인의 충돌로 인한 대립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갈등동기의 설정도 한 개인을 둘러싼 외적 조건인 상황에서 제시되기도 하고 개인의 '내적조건'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들 작품의 갈등은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데 완전히 분절된 상태에서 존재하기보다 서로 공존하는 상태에서 移入되거나 변형되어 나타난다.

지금까지의 논의사항들을 결론삼아 개괄적으로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설 갈등의 전개는 전체적인 갈등의 양상이 한 개인의 내적자아와 외적자아의 갈등과 인간관계에서 파급되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집단의식과 개인의식의 대립으로 인한 개인의 자의식의 방향에 관점을 두어 접근시킨 자의식의 갈등은 『나무들 비탈에 서다』를 통해서 주인공들이 전쟁의 현실로 인해 자아와 갈등을 경험했고 『일월』에서는 인습과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교독으로 자아와의 갈등을 경험했으며 『움직이는 상』에서는 민족성인 유랑민 근성과 인간성 구원으로 자아와의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작가는 자의식이 강한 개인들의 내면갈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동시에 자기결벽증에 사로잡힌 민감한 개인들의 내면갈등의 원인은 바로 개인들이 속한 사회와 시대의 俗惡함에 있다는 것을 역설하는 데 어느정도 성공을 거둔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갈등에서는 개인들이 자신의 세계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 속으로 칩거하면서 본질적인 인간적 유대를 거부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것은 이기주의가 만연된 현실세계의 모순적 조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인의 교립을 조장하는 시대와 사회의 병폐를 드러낸다.

둘째, 갈등의 해결을 다룬 장에서는 인물들에게 부여된 소설의 갈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는 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여기에서는 자아와 세계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접근시켰는데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서는 자기동일성의 추구 측면에서 『일월』과 『움직이는 성』에서는 세계 동일성의 추구 측면에서 갈등의 해결이 유도되었다. 전자에서는 자의식의 갈등을 자기내면의 동일성 회복이라는 측면에 의미를 두어 주인공들이 자기동일성의 추구를 완성시켜 나갔고 후자에서는 자기동일성 회복을 달성한 주인공들이 세계와의 동일성 회복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갈등이 해결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작품에서는 갈등의 결말처리가 완전한 해결점에 도달하여 소멸되기보다는 해결에 이르기 위한 긍정적인 전망이 암시된다. 이러한 갈등해결의 긍정적인 전망의 암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극복하려는 의지적인 인간들을 등장시켜 세계와의 화해를 모색하게 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셋째, 인물의 유형에 대해 다룬 장에서는 인물유형의 분류기준을 갈등양상과 갈등의 전개에 있어서의 역할과 기능에 두어 등장인물을 주동인물, 반동인물, 배계인물로 나누었다. 작가는 자기가 사는 시대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인물들을 좌중인물로 설정하여 소설에 등장시킨다. 황순원 또한 작품에 여러 유형의 인물을 등장시켜 그들의 삶의 단면을 제시했다. 현실 패배적인 지식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들의 패배적인 삶 이면에 도사리고 모순 투성이의 환경조건을 폭로하고자 했고 현실의 모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세계와의 화해를 모색하는 현실 극복적인 지식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주어진 숙명적 조건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했다. 황순원 후기장편의 전면에는 주로 사회와 현실에 대응하는 소시민의 삶과 의식이 투영되어 나타난다. 이들 소시민들은 정신적으로 소외된 자들로 작가는 정신적으로 뿌리 뽑힌 자들을 주요인물로 다루면서 俗惡한 현실에 반응하는 그들의 의식의 변모과정을 추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여기에서 반동인물과 배계인물들은 주동인물의 행동에 반대의 힘으로 작용하고 갈등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이들의 행동에 의식적인 변화를 초래하거나 갈등의 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등장한다. 이들 인물들의 행동이나 성격은 주동인물의 행동과 성격을 드러내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또한 소설의 갈등전개와 해결에 있어서 촉매작용을

담당하면서 구체화되기에 이른다.

이상의 논의들에서 살핀 것과 같이 작가는 俗惡한 현실의 조건에서 인간적인 개성을 유지하려는 개인들의 모습을 그려내는 데 주력했다. 또한 인물들로 하여금 자아와의 갈등을 심각하게 경험하게 하면서 이들의 자의식의 방향에는 불가피하게 개인과 사회 사이의 모순과 충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또한 작가는 후기장편을 통해 인간의 고유한 존재가치인 인간적인 것의 의미 상실에 역점을 두면서 진실된 인간성의 회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아의 깨달음에 대한 자아와 세계와의 적극적인 대결과 화해를 통해 본질적인 인간의 가치와 존재는 회복되리라는 휴머니즘에 입각한 긍정적인 암시를 보내고 있다.



參 考 文 獻

- 황순원, 『나무들 비탈에 서다』, 문학과 지성사, 1985.
—, 『日月』, 문학과 지성사, 1985.
—, 『움직이는 城』, 문학과 지성사, 1985.

-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 성문각, 1985.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김천혜, 『소설구조의 이론』, 문학과지성사, 1990.
김치수,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기린원, 1989.
김화영 편, 『소설이란 무엇인가』, 문학사상사, 1986.
오생근 편, 『황순원연구』, 문학과지성사, 1985.
이광풍, 『현대소설의 원형적 연구』, 집문당, 1985.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1978.
이승훈, 『한국문학과 구조주의』, 문학과비평사, 1988.
정한숙, 『소설기술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2.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2.
—,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비평사, 1988.
천이두, 『종합애의 의지』, 일지사, 1970.
홍기삼, 『문학사의 기술과 이해』, 평민사, 1979.

- 현길언, 『한국소설의 분석적 이해』, 문학과비평, 1990.
 한승욱, 『한국현대장편소설연구』, 민음사, 1989.
 황순원, 『말과 삶과 자유』, 문학과지성사, 1985.

- 김영화, “일월의 세계”, 어문학논총, 맥남 金一恨博士華甲紀念, 맥남 金一恨
 博士華甲紀念論叢 刊行委員會, 1985
 —, “황순원소설의 세계”, 분단문학과 비평문학, 한국비평가협회, 1986
 박관수, “황순원소설 연구”, 성신여대대학원 석사논문, 1983
 박양호, “황순원단편소설 연구”, 어문논총 제9집, 전남대어문학연구회, 1986
 서경희, “황순원소설 연구”, 어문학연구 제5집, 전북대어문학연구회, 1985
 안남연, “황순원장편소설의 작중인물과 윤리의식”, 우리어문학연구,
 한국외대 사대 한국어교육과, 1990
 우한용, “황순원 초기장편의 양식적 특징”, 언어문학 제15집,
 전북대 국어국문학회, 1985
 이현란, “황순원소설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8
 이용남, “황순원소설 연구”, 비교문학 제15집, 한국비교문학회, 1990
 홍정운, “황순원론”, 현대문학, 1981, 7월호

Abstrat

A Study on the conflict Hwang sun-won's long stories
—mainly 『Trees stand on the slope』 『Sun and MOon』 『the Moving Castle』—

Ko Eun-sug

So far, we have known about the aspect of conflict which is represented in the later works of Hwang Sun-won. In his later novels, he pays attention to the inner world of the individual and develops the novel. The inner conflict of these works is mostly due to the individual psychological quality and character, but implication of the works includes antagonism deriving from conflict in the reality and the individual.

First, In chapter dealing with the aspect of conflict, the aspect of the whole conflict is classified into the two. One is conflict of internal ego and external ego coming from individual consciousness. The other is conflict between the characters surrounding them. So, in 『Trees stand on the slope』 characters reveal experience about the conflict of ego owing to the war. In 『Sun and Moon』, they experienced the conflict of ego on account of solitary by collective egoism. In 『the Moving Castle』, they reveal the conflict of ego owing to nationality.

Second, In chapter dealing with the development and settlement of conflict, I discussed how it has developed and settled. In this place talking notice of the relationship of ego and world, I observed 『Tree stand on the slope』 from an individual pursuit point of view, 『Sun and Moon』 and 『the Moving Castle』 from an equality of ego and wo

-rld point of view.

Third, in chapter treating the type of the character, classific standard of it lay in the role and fuction of the conflict aspect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the characters was divided into Protagonist, antagonist, and mediator. Hwang Sun-wan also put several types of character and suggest a phase of their lives. The later writings project the life and consciousness of a petit bourgeois corresponding to the society and reality.

Those petit bourgeois alienated psychologically are dealt with major figure and the writer puts emphasis on looking for their variation process of the consciousness reacting the reality.

In this, antagonist and mediator behave against action of major characters, play a part on aggravate the conflict, result into consciousness change of action, and play an important role on settlement of conflict.

